

정론직필 반세기 창간 49주년



그림=허만옥(본교 경주캠 미술학과 교수)

지면안내

☞ 다시보는 만평·만화 8면



동국 1백년, 동대신문 50년! 지난 반세기 본교의 역사는 물론 사회인류의 굵적굵직한 사건을 날카롭고도 재치있게 그려낸 만평·만화를 소개한다. 또한 당시 사회상을 말해주고 있는 70년대 동대신문에 실린 '흔스러운' 상업광고는 독자여러분을 향수의 세계, 아버지의 세계로 이끌 것이다.

☞ 창간49주년 기념 좌담회 9면



동대신문사 전·현직 기자들이 모여 '동대·동대생·동대신문'이라는 주제로 한바탕 이야기꽃을 피웠다. 동대생이기보다는 동대신문사 기자였더라는 전직기자들의 고언을 들어 보았다.

☞ 본교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10면

☞ '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 토론회 3면

☞ 독립적인 국가인권위 건설돼야 7면

☞ 젊음이 밤을 수놓는다 12면

그대들의 핏빛축제

창간 49주년에 부쳐

김택근

누가 빗질해 보냈는가
반세기를 돌아와
오늘 또 피는, 그대들의 봄

물이 물을 먹고
흙이 흙을 빚고
바람이 바람을 날리지
세상이 세상을 버려
우리가 이렇게 젊은거지

길을 열고 길속에 들어가
다시 누군가의 길이 되고
너무나 고단하면
누군가의 잠속에 들어가
다시 꿈꾸고

내결의 나를 깨웠지
무리속에 나를 풀어놓고
비틀비틀 걷다가
서로 껴안았지

돌아보면 매일 피를 흘렸지
활자에 늘리고
시간에 베이고
세상에 찢리고

공원 벤치에, 어느 간이역에, 술집 탁자에,
하숙방 책상에, 고향집 뒷간에, 극장소파에,
쓰레기통에
버려져서 태어나는 젊음들

오늘은 활자에 꽃물을 들이는 날
간밤의 신열이 멈추었으면
시간을 베고 잠들었으면

누가 빗질해 보냈는가
맑은 그대,
그대들이 빛은 투명한 봄

소나기

동대신문에 한마디



△학우들과 같이 생각하고, 함께 생활하는 습관을 게을리 하지 맙시다.
 △만화 좀 바꿔라.
 △크고 검은 붓이여 영원하라. -kokiri
 △내가 들어 갈 수가 없어서.
 △창간 49주년을 축하합니다.
 △인터넷 기사 서비스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건 알겠는데 좀더 예쁘게 해주세요.
 △우~
 △장!

△나의 모든 것. 학교 자랑을 좀 더!
 △좋다. - 동대 얼굴 짱!
 △총장님, 학관 옥상에 동국 대학교 네온 간판 설치해 주소!

돈 없으면 동국관개 폐다가 라도...
 동대 신문서 한방 때려 주소!

△방학 때 휴간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수습기자 뽑는다면서 휴간(어느 신문이 기자 뽑는다면서 휴간하는가.), 시험기간 몇 주씩 휴간, 방학 몇 주 전부터 휴간.

신문이 휴간한다는 것은 신문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장수를 즐기더라도 꼬박꼬박 발행되어야 한다.

△지면혁신은 알·뒷편을 킨다 하는 것이 아니다. 양이 아닌 질이다.
 △심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기사를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맥킨지(Mckinsey)나 앤더슨(Anderson), Bain은 왜 우리학교에는 오지 않느냐. 자존심 상하게, 고대까지만 가고.

△서울보도와 경주보도를 확실히 구분해 주세요.
 △사진과 그림을 좀 많이 넣어.

△동대신문 홍보를 확실히
 △동대신문 배부장소 좀 가르쳐 주소.
 △시사코너를 좀더 확대해 주세요.

△스포츠 소식도 알고 싶다.
 △정문작필.

△경주캠퍼스 동아리에 관심 가져주세요.(소개, 홍보, 공연 안내등)
 △사설을 알차게 적어주세요.

△경주 자체적으로 신문을 만듭시다.
 △만화 잘 그려주세요.

△만평도 만만치 않아요.
 △시사적 내용 날카롭게 지적해 주세요.
 △자격증 시험 광고(경북 실시 분야)도 해줘요.

△학내 행사를 세부적으로 알차게 알려주세요.
 △우리학교 연예인 기사 많이.

△학생들에게 실용적으로 도움 될만한 기사좀...
 △클릭! dgupress!

△학생식당 차림표가 너무 작다
 △동대신문사! 49년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앞으로도 열세미~~ 화이팅!

△신문사... 개발하라! 내부가 궁급하다.

중앙 도서관 분관 건립되길

다향관 자리에 ... 주변가옥 매입으로 '확충'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의 공간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학교발전의 장애가 될 정도로 심각하다. 이 문제는 절대공간이 부족한 서울캠퍼스의 현실과 95년이후 3층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남산 고도제한, 그리고 90년대 이후 대학 특성화와 전략 학문 육성을 위한 학교 본부의 증과 증원, 이 세 가지가 빚어낸 문제이다.

그러나 대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도서관을 지금 이상태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동국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나는 현 다향관 자리에 중앙도서관 분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현 다향관은 상록원이 건립되고 동국관 식당과 문화관 식당, 매점이 개점하는 2학기부터는 효용도가 떨어진다. 지하 1층의 서점을 비롯한 편의 시설은 명진관 옆 가건물로 임시 이전시키고 현 다향관 자리에 지하 2층·지상 3층규모의 중앙

도서관 분관을 건립한다면 전자 첨단 멀티미디어 도서관, 포화 상태인 열람실과 서고 확장 등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 다향관 주변 노후 가옥을 매입하여 현재의 중앙도서관과 다향관에 세울 분관을 구름다리로 연결한다면 현재의 중앙도서관의 절대 공간을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서울캠퍼스에 재학생인 동국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사진관이나 이발소가 축소되거나 이전되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현 다향관 위치에 중앙도서관 분관을 건립하는 것을 원하고 있을 것이다.

2006년 동국백주년을 앞두고 대학본부가 가장 먼저해야 할 과제는 70년대 규모의 현 중앙도서관을 동국 발전의 의지를 가지고 획기적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일 것이다.

김진(realjeany@hanmail.net)

'먹자판' 된 교문 앞 규제 필요

남쪽에서 살랑살랑 건너 온 봄기운이 움추려 있던 겨울을 내몰고 활기찬 신학기가 시작되기도 벌써 한달이 지나고 교내의 뿔뿔 목련꽃은 봄내색을 제법 느끼게 해준다.

오늘도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열띤 강의를 듣고나서, 진이 조금 빠진 친구들과 깨우친 학생회관 식당에 고른 배와 기운을 채우러 학생회관으로 향했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식권 줄은 사람들로 이어져 있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비었다. 본능인 식욕을 채우기 위해 할수 없이 예전에 즐겨 애용(?)했던 교문 앞, 순대 떡볶이 집으로 발길을 돌리긴 했지만 먹자 골목이 돼버린 학교앞 모습은 씩 보기가 좋지 않았다.

음식 종류도 여러가지이다. 순대·떡볶이·핫도그는 기본이고 피자·토스트·피자·치킨 그리고 술까지...

이미 예전부터 학교주변에 서점보다 유흥업소와 음식점이 더 많아 진 것이 사실이지만 아예 교문앞까지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붙어 있는 모습이란... 마치 초등학교 앞이 된 듯한 인상을 준다.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포장마차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것 같다.

신нат한 볼과 함께 우리학교 교문 앞도

산뜻한 기본으로 들어설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김현정 (인문대 한국어문학부)

75분 수업 고려하길

75분 수강제 실시는 어떨는지? 기계,식품,화학 공학부 99학번 새내기이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 다른 서울의 명문 대학교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 75분 수강제를 실시한다고 들었다. 생각을 하니 3학년짜리 수업을 75분을 1시간으로 해서 2시간들으면 매우 효율적인 것 같다. 현행수업은 60분을 기준으로 해서 10분 휴식, 50분 수업으로 이루어져있다.

하지만 이는 너무 획일적인 것 같고 현실을 무시하는 제도이다. 현행제도에서는 50분 가지고는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수업진도가 얼마 나가지도 않고 2시간 연속으로 수업을 하면 1백분이나 너무 오래 수업을 해서 교수나 학생 모두가 지루해한다. 따라서 우리 동국대학교도 이 기회에 이점을 시정했으면 한다. 동국대학교가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좋은 제도는 받아들이고, 안 좋은 점은 고쳐나가야 한다.

최기진(공과대 기계식품화학공학부)

TEL : 22603491·2 / (0561)7702057·8
 FAX : 22791270
 인터넷 동대신문 ; http://dgupress.dongguk.ac.kr
 하이텔·나우누리 ID:dgpress, 천리안 ID:dgu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민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본게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알림 '최학의 세상보기 만화'는 필자사정으로 한 주 쉽니다.

동약광장

목명글
축하합니다
 △후후;; 진이형, 생일도 못 챙기고... 후후;; 우리 정말 나쁜 후배들이가봐, 형! 늦었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누군지 알죠?
 △M.S.S. (무소속의 약자) 창단을 무지막지하게 축하합니다!!
 -M.S.S. 꼬봉

수고하셨습니다.
 △문과대 학자주체 하느라 고생하는 경운이 파이팅!
 -수일
열심히 합니다.
 △지하철 파업 정당하다! 강력한 노학연대로 지하철 투쟁 사/수/하/자!
 -머리큰 싸울꾼
 △문과대학우 여러분, 학부제에 대해 격

렬히 반대합니다. 학부제는 대학의 위상을 취업양성소로 떨어뜨립니다.
 -문과대 어느 학우
 △사랑하는 경아 언니, 그리고 미움아, 어려운 때이지만 힘내자, 늘 고맙고... 크크크, 이거 실리면 나한테 뭐해줄꺼야? 절대로 뭘 바라고 이러는건 아니야.크크크...
 -772
 △Revolution의 무한한 발전을 위하여...
 화이팅!
 -pegasus

그리고...
 △병승아, 우리 언제 장학금 타냐? 벌써 5년이 지나고 있다. -고민많은 영도
 △경영 98 유진선 버릇 좀 고쳐주세요, 스나, 삐삐 끊었어.(012-325-7570) 연락은 전파로.
 -99 건토 이용직
동약장터
 △가방 4백원~8백원 △지갑 5백원 △구두 5백원~7백원 △요구르트 발효기 3천원 △면바지 5백원 △삼바지 3백원~1천

강의시간, 핸드폰이 울렸다...
'강의전 점검' 지성인으로서의 예의
'울리면' 자진퇴장
변명대며 수업 방해 무례한 행동 '썹썹'
 최근 휴대폰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휴대폰에 의한 소음공해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내에서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본인이 수강하는 강좌에서 있었던 참으로 용납하기 힘든 사건을 공개하고자 한다.
 첫 강의시간부터 교수님과 학생간에 강의 중 핸드폰이 울린다면 그 자리에 서 자진 퇴장하고 결석으로 인정하기로 한 약속을 비교적 잘 지키고 있었다. 아는 바와 같이 강의 중 핸드폰 소리가 울린다면 강의하시는 교수님뿐만 아니라 여타 학우들에게 상당한 실례가 될 뿐만아니라 강의의 진행에도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전 시간, 강의 중 자신의 핸드폰이 울리자 자진 퇴장을 하지 않은 채, 10분이 넘도록 교수님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학우가 첫 대상자라면 이해는 가겠지만 구차한 변명에도 수업 진행을 막으면서까지 꼭 남아서 출석을 해야겠다는 무례한 행동에 이어, 결국 퇴장을 하면서 작은 소리였지만 목설과 함께 출입문을 심하게 닫고 나가는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가 있었다.
 아무리 교육환경이 민주적으로 변한

다 할지라도, 애초에 약속했던 사항이고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급한 무례한 행동을 범한 그 학생은, 비록 자신이 그 강의를 포기한다 할 지라도 이에 더하여 학사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 다.
 이러한 경우는 아주 심한 예이겠지만 많은 강의 도중 핸드폰 소음공해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지성인으로서의 진정한 자각과 강의 시작 전 반드시 자신의 핸드폰을 점검해 보는 최소한의 예의가 반드시 요구된다.
 서호준(사과대 정치외교학과)

'울리긴' 했어도
교수의 인격모독 존경심마저 꺾여
 요즘 들어 수업시간에 울려대는 휴대폰으로 수업 진행이 잘되지 못할 정도이다.
 학생으로서 교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수업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다면 수업시간 이전에 전원을 끄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정석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 수업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한 학생의 휴대폰이 정적을 깨고 울려 대는 것이다. 문제는 그 뒤에 교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행동들에 있다.
 교수님은 이번엔 화가 나셨는지, 그

여학생을 앞으로 불러내어 간단한 문제를 풀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간다. 여학생은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찢찢 매고 있었다.
 그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 왜 여학생이 이걸 배우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수 있는지... 그리고 여학생이 부끄러워 했던 그런 행동을 마치 재미있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계속 '수업이 끝날때까지' 하시는 것이 아닌가?
 교수님은 아마도 남학생들은 다 그 문제를 풀수 있다고 생각하신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한때 유행했던 광고 "지금이 때가 어느때나..." 그말 그대로.
 지금이 때가 어느때나 신성한 교정에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평소에도 그 교수님을 존경하던 나로서도 그 존경심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화가난다. 교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그 수업을 들던 여학생들의 수가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교수님의 그 말씀에 아무런 대꾸는 하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던 그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세상의 인구 중에 절반이 여자인고, 남자보다 더 똑똑한 여자도 많다는 것을...
 최희영 (eng40@hanmail.net)

국교과 교수총원 "더이상 늦출 수 없다"

교수·학생 비율 '51:1' ... 4년째 고전문학 교수 없어

사범대 국어교육과(이하 국교과)의 교육목표는 "국어학, 현대문학, 고전문학, 국어교육 분야에 두루 전문 지식을 갖춘 훌륭한 국어교사를 배출하는것..."이다. 이미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국어과의 중요한 교과과정 중 하나가 고전문학이다.
 국교과는 전에 계시던 고전 분야를 담당하던 교수님이 퇴임하신 이후로 올해까지 4년째 고전문학을 담당할 전임 교수님이 한 분도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누구에 의해 가르침을 받아왔는가? 충분한 교수능력과 뚜렷한 소속감을 지니지 못한 시간강사와 국어국문학부 교수님이 가르쳤다. 그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국교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는 원성 섞인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국교과에 입학한 성원이라면 누구라도 교육목표에 합당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너무나도 정당한 학습권의 발포인 것이다.
 어렵게 교과과정을 가지고 국교과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교수와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그 참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대학의 법정 교원수는 학생대 교수비율 16.9 : 1 인데, 98년 기준 사범대학의 전임교수 1인당 재학생수는 놀랍게도 교수님 4명이 재학생 204명을 지도하고 있으며 이는 51:1이라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대학의 법정 교원수는 학생대 교수비율 16.9 : 1 인데, 98년 기준 사범대학의 전임교수 1인당 재학생수는 놀랍게도 교수님 4명이 재학생 204명을 지도하고 있으며 이는 51:1이라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요즘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이렇게 열악한 교수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없을 것이다. 실정이 이러니 올바른 상담 지도나 제대로된 교육환경이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তা대학 국교과와 실정을 비교해보면 우리 국교과는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고전 분야를 비롯한 여러 과

목을 담당할 교수님의 부재, 교수님의 수, 뒤떨어지고 있는 교과 과정등 여러 분야에서 타대학에 뒤처지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학습권도 뒤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24일 있었던 국교과 정기총회에서 204명 국교인들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지난 3년동안의 방향을 마치고 99년에는 반드시 교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학습권을 침해 받아서는 안된다. 학교당국이 진정으로 대학의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학생들이 제대로 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교과목에 대한 교수총원을 하루 빨리 실시해야 할 것이며 이는 학교당국의 2학기 교수총원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김태광(사범대 국교과·국교과 학생회장)

다향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미트볼스튜(1500) 콩나물볶음밥(1300)
화	낙지우침(1500) 짜장떡볶이(1300)
수	산채비빔밥(1300) 두부간장고기(1300)
목	닭갈비구이(1500) 생선가스(1300)
금	후원크 이재볶음(1300) 김치탕(1500)

(단위:원)

상록원 학생식당 차림표

월	카레돈가스(1300) 비빔밥(1300) 김치볶음밥(1300) 카레돈가스(1300) 탕수육백반(1500) 양지탕(1300)
화	연두부백반(1300) 탕수육백반(1500)
수	하이라이스(1300) 불고기비빔밥(1500) 섞어찌개(1300) 하이라이스(1300)
목	오징어소면우침(1300) 닭개장(1300) 맛살볶음밥(1300) 오징어소면우침(1300)
금	제육떡갈비(1500) 제육떡갈비(1300) 버섯떡갈비(1300) 제육떡갈비(1500)

(단위:원)

열심히 합니다
 △한번 주장은 평생 주장, 주장하면 한 주장하는 여성 주장, 병철 선배님! 파이팅입니다.
 -어느 아성 글수필이
 △법(야) 야구 동아리인 네발짝의 TOUGH GUY 도영호 회장님 더도말고 덜도말고 지금처럼 변치않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네발짝 파이팅!
 △고전음악감상실 후배들 모두 너무 너무 고생 많고 사랑스럽구나, 앞으로도 변치않기를 ... 모두들 힘내자!
 △적극적으로 열심히 행사법화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최현수 회장님! 끝까지 열심히 하십시오.
 -항상 지켜보는 이가

알립니다
 △4월 16일 제 19회 동국인 등산대회, '상품 푸짐' 많이 참가하세요.
 △JUMP OB 선배님들 4.17-18일 양일간 OB정을 실시하오니 선배님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뜨거운 땀을 나셨으면

합니다.
 -일문과 농구동아리 JUMP 현역 일등
 △회계학과 M.T.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회계학과 집행부님들 좀더 열심히 하세요.
 -P
그리고...
 △우와! 솔메리아 언니 넘 멋졌어요! 자대 출법식날에 음.
 △인어공주, 이쁜 윤희, 구슬공주, 거울공주의 설레는 봄을 위하여...
 △왜 제마음을 이리도 불러주십니까? 그대 때문에 저는 나날이 페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대: 학생회관 포과는 아가씨 연락 안주시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으흐흐...) -상경대 박모교 올림
 △용재오빠 군대 잘 다녀와요. 몸도 건강히.
 -선애친구 슴
 △박기혁 생물학과(92학번) 조교님! 지난 4월 6일 비오던 날! (택시부 조달) 정말 고마웠습니다. 건강하세요!
 -은혜업은 국민인(세교 올림)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 '졸속' 논란

교육주체간 논의 미흡 부실화 우려 ... "충분한 의견수렴 선행돼야"

지난 3월 11일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이하 시안)'이 발표된 이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공동의장=유초하, 강내희 이하 민교협)와 사립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장=이재운 이하 사교련) 공동주최로 '교육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의 의미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서울대 연건캠퍼스의 보건대학원에서 진행됐다.

대학 등 각종 학교에 경쟁과 효율 지향의 개혁 풍토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이번 시안은 향후 2003년까지 교육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 8개 정책목표와 67개 핵심 정책이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 대학관련 사항으로는 '연구중점대학원중심대학의 선정', '지역

우수대학 육성',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연구 지원' 등이 있다.

성균관대 박성환 교수의 사회로 박거용(상명대 영어교육) 교수의 '한국대학의 현실과 교육부 시안의 의미', 박정원(상지대 경제학)교수의 '사립대에서 본 교육부시안의 문제와 대안', 지승종(경상대 사회학)교수의 '국립대에서 본 교육부 시안의 문제와 대안'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책의 졸속한 입안과 집행은 안되며, 좀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박거용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소수 공무원과 기획위원으로 5개년만에 시안이 마련되고 한달의 검토기간이 너무 짧은 점 △김영삼 정권의 5·31교육 개혁

안과 별반 다르지 않고 교수의 신분보장 문제등에서는 정책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점 △교육재정 확보의 투명성 문제 △대부분의 계획안이 미시적이고 수동적인 방안인 점 △교육부 시안에 대해 △"교육"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는 점 △교육의 보편성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대학간의 경쟁을 통해 적자생존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통일을 대비한 민중교육의 관심이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벌어진 종합토론에서 고형일(전남대 교육학)교수와 이종구(성공회대 사회학)교수 등도 "99년에 교육예산이 전년대비 5.1%나 삭감된 상황에서 향후 5년간 1백13조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외에도 대학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연구중점 대학원중심대학 지정의 폐지, 교수협의회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학부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등의 주장이 나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더 진지한 검토작업이 필요함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서남수 교육정책기획관은 "이번 시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들은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성안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제시된 많은 의견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벌인 뒤 확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부 주도로 진행된 다섯 번의 공청회에서 드러난 문제지만 향후 국가의 장래를 좌우할 교육정책이 너무 조급하게



지난 9일 많은 사람들의 참여속에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부 시안은 5월중으로 그 확정안이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각 대학 총학생회를 비롯한 많은 교수들이 불만을 나타내 보

이고 있어 이후에 교육부의 확정안이 나오기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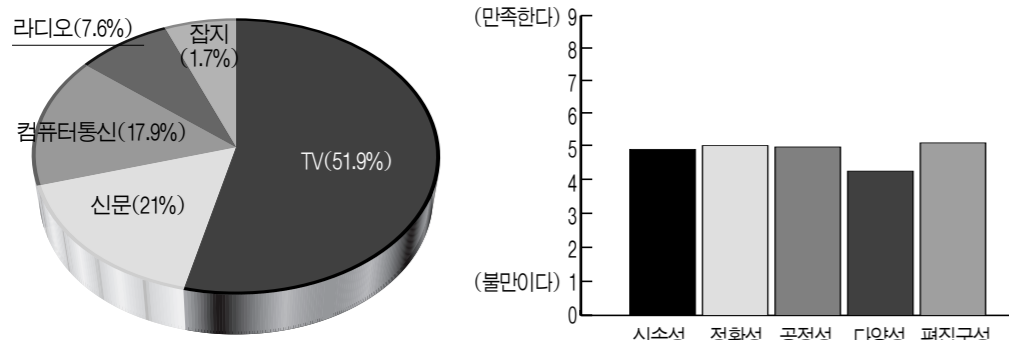
유철주 기자

cowso@cakra.dongguk.ac.kr

본지 창간기념 설문조사 결과

"본교생 동대신문 만족도 낮다"

적극적인 독자참여 바람직



본지는 창간 49주년을 맞이하여 본교 재학생 2백95명을 대상으로 대중매체의 선호도와 동대신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관계기사 10면 대중매체 선호도에 대한 조사 결과 학생들은 TV, 신문, 컴퓨터 통신순으로 선호하며 이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손쉽게 이용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V를 좋아하는 이유는 재미있어서라는 응답이 가

장 많았으며, 이에 반해 신문과 컴퓨터 통신의 경우는 정보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신속성, 정확성, 공정성, 다양성, 편집구성의 5가지 항목을 통해 평가한 동대신문에 대한 만족도 문항에서는 편집구성영역을 제외한 4가지 영역이 중간에도 미치지 않는 점수를 얻어 동대신문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내용의 다양성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또한 동대신문에서 학생들이 주

로 읽고 좋다고 생각하는 기사는 학내보도와 문화면이며, 가장 좋지 않으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사는 정치사회면이다.

동대신문을 읽는 이유로는 학내 소식이 궁금하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33.3%의 학생이 학내에 배포되므로 읽는다는 응답을 해 학생들이 동대신문에 다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부

한총련 대대회 17일부터 홍익대서 개최

의장 선출·총노선 수립 등 안건 논의... "평화적 개최 보장해야"

검찰당국에서 이미 7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임시의장은 윤기진 명지대 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불탈퇴 대의원에 대한 검거 방침을 표명한 이후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임시대의원대회가 홍익대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긴장이 예상된다.

한총련은 지난달 29일 중앙상임위원회를 열고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임시대의원대회를 홍익대학교에서 개최할 것을 결의, 현재 대의원대회회사를 위해 한

양대와 홍익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평화적 개최 보장을 촉구하는 등 실질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한총련은 △국가보안법 철폐 △7기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수배해제 △한총련 탈퇴 공작 악대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긴장이 예상된다.

또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오종렬)에서도 한총련 대의원대회의 평화적 개최 보장을 요구하는 지지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7기 한총련 의장선출을 비롯해 총노선 수립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7기 한총련의장선거는 현 임시의장인 윤기진 명지대 총학생회장과 송영우 경북대 총학생회장이 출마를 선언,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선으로 치루어질 전망이다.

"결식아동에게도 자비를"

경주캠 교직원 지역학생돕기 적극 참가

경주캠 노동조합(위원장=이진형·교무과)은 경주지역 초·중생 결식아동돕기 모금을 두차례에 걸쳐 벌인결과 경주캠 교직원 1백41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수시로 결식아동돕기 모금을 접수받고 있는 이진형 위원장은 "1차 모금 인원중 교원은 2명에 불과했지만 2차 모금에는 교원이 30명으로 늘었다"며 "전 교직원

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차 모금 기간중 송석구 총장과 김갑주 경주캠 부총장, 장용철 사무처장은 금일봉을 직원노조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사회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뜻깊은 행사에 전 동국인의 동참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고산 큰스님 초청 대법회 13일 오후 4시 정각원에서

서울캠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내일(13일) 오후 4시 조계종 총무원장인 오고산 큰스님을 초청해 '고승초법법회를 개최한다. '불교 초발심으로 돌아가자'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법회는 본교 교직원 및 재학생, 일반 불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각원의 한 관계자는 "본교 교직원 및 일반신도의 많은 참여로 불심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리소

태국(泰國)의 자비

윤청광 (불교방송 고승열전 작가)

우리가 태국(泰國)이라고 부르는 타이랜드는 세계에 널리 알려진 불교국가이다. 그런데 이 불교국가에서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초까지는 심심치 않게 쿠데타가 발생하곤 했었다.

권력을 총칼로 잡겠다는 군사 쿠데타가 태국에서 몇 번 성공했고, 몇 번 실패했었는지, 그 정확한 기억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불교국가인 태국에서 일어났던 군사 쿠데타가 실패하여 반란군들이 정부군에 의해 완전 진압되었을 때, 외국 통신이 전해준 사진보도는 참으로 '충격적'이었다.

반란군을 완전 진압한 정부의 집권세력이 반란을 주도했던 쿠데타 주동자들에게 해외로 도피할 수 있도록 비행기편을 제공해주었다는 소식이었다.

역모를 피하다 발각되거나 실패하면 본인은 물론 삼족까지 죽임을 당해야 했던 사육신(死六臣)의 이야기를 현실로 겪으며 살아온 우리들에게, 반란군주동자들에게 도피용 비행기를 제공해주었다는 당시 태국 집권층의 자비는 참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이었던 것이다.

군사 쿠데타 주동자들에게 도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거기에 또 비행기편까지 제공해준 일은 불교국가인 태국이 아니고는 아마도 전무후무한 정치적 사건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불교를 받아 들인지 실로 1천 6백년이 지났고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2천 만명이 불교를 신봉하는 준불교국가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다. 그리고 불교는 장장 1천6백년의 세월을 통해 우리에게 변함없이 자비(慈悲)를 가르쳐 왔고, 나눔과 베품을 가장 아름다운 덕목으로 심어주었다.

비록 우리나라가 태국처럼 불교국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역모를 피하다 실패한 역적들에게 도망갈 비행기편을 마련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같은 불교집안, 같은 수행자들끼리, 역적과 충신으로 편을 갈라서 죽고 죽이는 참극을 벌이는 일은 과연 옳은 일인가?

우리나라 불교의 대표종단에서 '별빈'이라는 이름의 '사형'을 계속 남발하는 일은 참으로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고수동정

▲오국근(영문학)=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교내 산악부의 히말라야 등반대 지도차 내팔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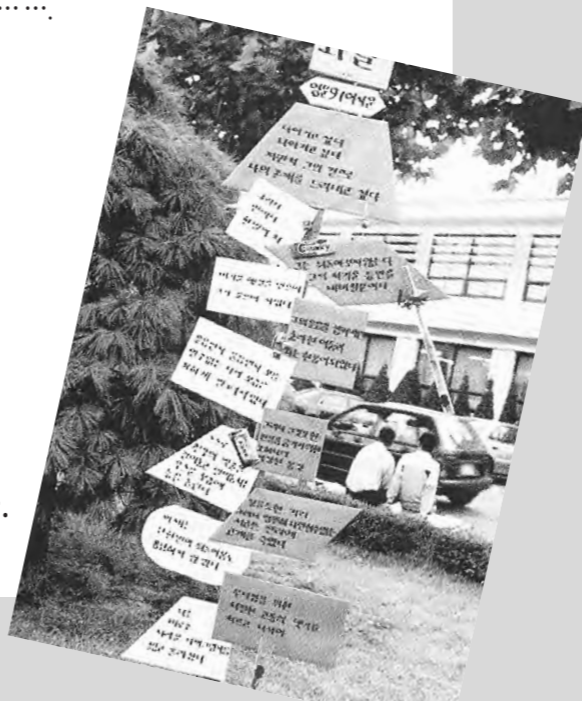
▲이민웅(응용생물학)=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중국베이징 과학원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



아름다운 동국을 새겨주십시오. 그때 그 순간!



촬영장소 : ○○○
 촬영일시 : ○월 ○일
 오랫동안 친구들과 잔디밭에서 한번 뭉쳤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장난기가 발동해 인강피라미드를 쌓아 보았습니다.....
 종민이, 재영이... 그때가 그림습니다.



촬영장소 : ○○○
 촬영일시 : ○월 ○일
 축제기간에 개최된 시화전. 내가 쓴 시를 처음으로 발표한 무대입니다. 얼마나 설레던지....

동대신문사는 창간 49주년을 맞이하여 전 동국인을 대상으로 사진을 공모합니다.

서울·경주 교정을 오가면서 뜻깊은 추억이 새겨진 곳이나 아름다운 사계(四季)를 담은 것이면 됩니다.

흑백·칼라 제한은 없고 규격은 4×6 이상이며, 학생, 교수, 교직원, 동문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입선된 작품들은 신문지면에 게재하고 소정의 고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진을 제출하실 때에는 촬영장소와 일시, 주제를 간략하게 적어 동봉해 주십시오.

동국의 명장소, 명장면, 소중한 추억 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가 끝나면 작품들을 한데 모아 사진전을 개최한 후 사진집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공모마감은 5월6일까지이며 본사 총무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 (02)2260-3491, 2 (0561)770-2057

등협 이번주 중 '해결' 예상

양측 상당부분 의견접근 ... 오늘 총장면담에서 결정

총학생회(회장=김호중·불교4)와 학교측의 등록금 협의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학자 10개요구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오늘(12일) 오후2시 총장실에서 진행될 총학생회와 총장과의 면담의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월부터 4차례에 걸친 등록금 협의가 시작된 이후 총학생회의 10개요구안 제시, 학원자주화 투쟁선포시, 총장면담과 두 차례의 총궐기 대회, 총장실 점거시도 등 등록금 협의의 문제로 인한 진통이 계속돼 왔다.

지난 주 총장실 점거 시도 이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듯

했으나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에 걸쳐 논의의 자리가 마련돼 사실상 협의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할납부와 도서관 신축 등의 사안은 긍정적인 해결이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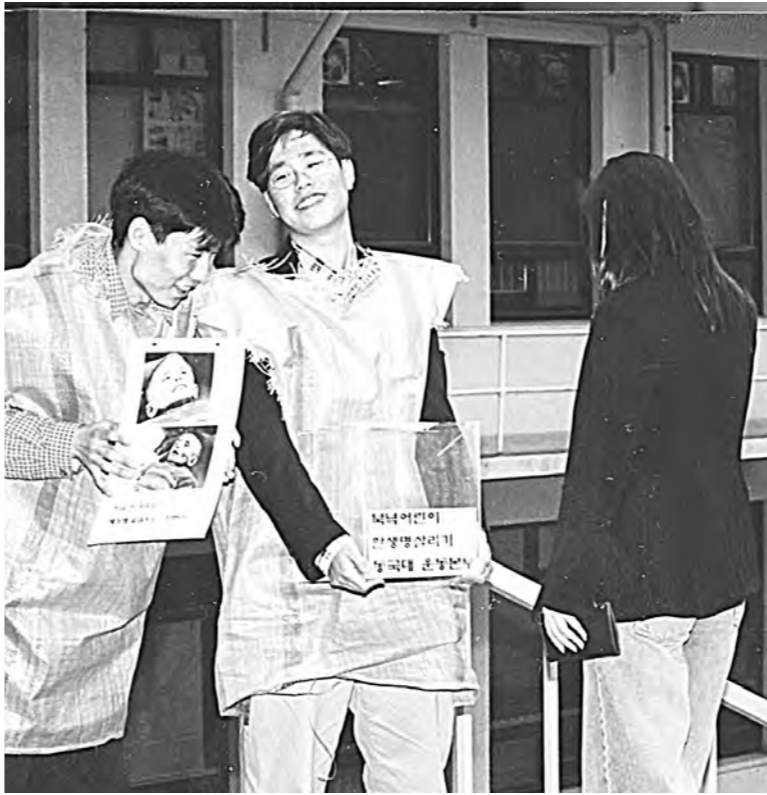
또한 장학금의 대폭 확충, 학생경비 20% 확보, 교수총원과 교양강좌 확충, 학부제 위원회 건설 등 10개 요구안의 구체적인 사안들은 오늘 면담에서 대부분 결정지어질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학교당국과 총학생회의 진지한 논의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학생처의 한 관계자는 "전체 요구안에 다 합의 할 수

는 없을지라도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진 총학생회 학원자주화 투쟁위원장은 "총학생회의 내부 논의를 거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의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혀 협의안 도출이 긍정적임을 시사했다.

한편, 총학생회는 내일(13일) 오후 3시 30분 도서관 앞에서 '학원자주화 승리와 국가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민족통국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희망의 쌀... 지난주 금요일 사대대 학생들이 북한어린이들이 '금요일 점심 굶기 운동'을 벌였다. 쌀푸대를 입고 북으로 가기를 원하는 '희망의 쌀'이 된 학생들이 점심시간 상록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일방통행' 후문앞 상인 지지 요청

중구청 민원 접수·서명운동도 전개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박찬정·수교4)는 지난달 29일에 치러진 학생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후문앞 일방통행에 대한 실천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주는 후문앞 상인들을 상대로 일방통행을 지지하도록 직접 만나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며 상인들의 지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에게 상호명을 공개하여 불매운동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다음주부터는 중구청에 항의민원을 제출하는 등 일방통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총대, 특별감사 실시

미선거·미제출 단위 20일까지 자료 제출

총대의원회(의장=최진범·영문4)는 각 자치단위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징계나 면담 없이 서면감사로만 진행하며 각 단위의 사업계획서와 기조 등 한 학기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이다. 1차 자료 제출은 지난 6일 마감되었으며 올 해 선거가 치러진 지역은 오는 2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전교생 대상 인·적성 검사 실시

전공선택·장래결정 도움 기대

학생생활상담센터(소장=정진환·교육학)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과 및 직업선택을 위한 인·적성검사'를 오늘(12일)과 오는 14일 오후 3시에 본관(C102와 C105)에서 각각 실시한다.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검사는 직업에 대한 능력, 인상, 그리고 선호경향을 측정해 학생들의 전공선택이나 장래의 직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과 신청에 따른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은 검사실시 전일까지 하면 된다. 적성검사는 학기중 매달 실시될 예정이며, 실시 전달 말에 학생생활상담센터 홈페이지나 공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야총, 14일 전학대회 개최

총노선·학제개편 등 논의

야간강좌총학생회(회장=이영수·전산통계4 이하 야총)는 오는 14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99학년도 총노선과 학제개편문제를 비롯해 야간강좌 산업체 70%확대 선발 △여학생 휴게실 방음벽 설치 △수업 결손금 처리 △신설과 교수 확충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영수 야총 회장은 "야간교육의 정상화와 학원자주화를 위한 생각들이 전학대회에서 펼쳐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두복 교수 초청 특강

15일 "중국내 조선족문제..." 주제로

국제정보대학원(원장=송석구·철학)은 오는 15일 오후 6시 30분 국제정보대학원 세미나실(1층)에서 '중국내 조선족문제 및 중국에서 분최근 북한현황'을 주제로 외교안보연구원 박두복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한다.

국제정보대학원이 주최하고 일본학연연구소가 후원하는 이번 특강은 북한 탈출주민들이 말하는 북한현황과 중국내 조선족 문제가 주요한 내용이다. 박두복 교수는 대만문화대학을 거쳐, 미국 미주리대학과 칸사스대학 객원교수를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 있다.

미시간주립대 교환학생 선발

5월 중순 재학생 대상으로 ... 전액 장학금 지급

연구교류처(처장=최순열·국어교육) 학술교류부는 다음달 중순에

미시간주립대학 교환학생을 선발한다.

과거학생의 자격조건은 현재 서울 및 경주캠퍼스 학부 3학년 재학생으로 평균평점 3.0이상이어야 하고 토플점수가 5백 50점 이상이며 해외유학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학술교류부 관계자는 "미시간주립대학 교환학생선발의 경우에는 토플성적이 중요하다"며 영어실력 향상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존에는 반액이 지급되던 장학금 체계가 전액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미리 준비해서 교환학생선발에 많은 학생들이 응시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 상담실 개설

"소비자문제 지금 상담하세요!"

학내외 폭넓은 사업 펼쳐 터

학생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유도과 소비자 관련 학문에 대한 실무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본교의 소비자 상담실(운영위원장=박명희·가정교육학)이 지난달 30일 사범대학 가정관리 실습실에 개설되었다.

소비자 상담실에서는 소비자들의 문제 해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중구 지역내 물가 지수 및 현장 조사 △각 소비자 단체 및 기관의 정보지 제공 △상품별 가격 비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상담실에는 박사 6명과 석사 3명의 상담요원으로 가정교육과 소비자학 연구팀을 구성하여, 학내 교직원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근 중구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화(02-2260-3057)나 인터넷(http://dguc.dongguk.ac.kr/~sobja/)상담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명희 교수는 "소비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상담실이 중재역할을 할 것"이라고 앞으로 포부를 밝혔다.

13일 학생증 추가교부

15일 이후 신청자 발급시 수수료 부과

장학과(과장=문옥래)는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중강당에서 지난 1일까지 학생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새 학생증을 추가 교부한다.

대학원생은 소속 교학부에서 교부하며 야간 강과 학생은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부대학 교학과에서 교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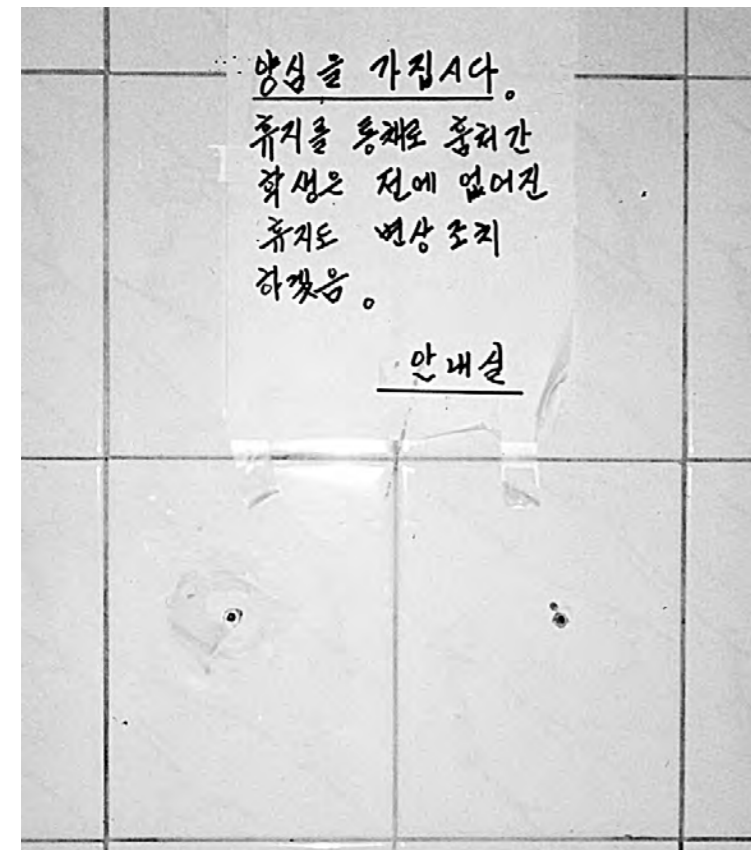
학생증은 반드시 오는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분실재발급은 오는 20일 이후 장학과에서 수수료 5천원을 부과해 발급한다.

이와 관련해 장학과의 한 관계자는 "오는 15일까지 반드시 학생증을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 신청자에게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총, '원우한마당' 개최

24일 학술문화관 광장에서

제15대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이석중·입학박사과정 3학기)는 오는 24일 오후 4시에 학술문화관 광장에서 총학생회 출범식인 '원우한마당'을 개최한다. 이와함께 진행되는 체육대회의 참가자 접수는 오는 14일 까지이며, △축구 △바둑 △장기는 19일부터 24일까지 △배드민턴 △농구 △탁구는 24일에 예·결선을 각각 치를 예정이다.



양심을 가집시다 ...

학생회관 1층 화장실의 화장지떨이가 없어진지 1주일이 다되어 간다. '양심'을 통채로 버린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기대해 본다.

유철주 기자 cowso@cakra.dongguk.ac.kr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동국발전기금기부(약정)자 명단
(기간 : 99. 3. 1-3. 31까지)

- ▶7만원 : 정호연 최효영 최효련 황종근
- ▶6만원 : 이원식
- ▶5만원 : 광두성 김순식 김지열 이진범식 최인아 황옥석 이병
- ▶4만원 : 김문영 이명자 장인옥
- ▶3만원 : 박우주 이원식 정준자 진병길
- ▶2만원 : 고귀원 김경동 나상연 문성환 박미희 박영길 박영진 송춘자 이승민 이운석 이은호 이진원 이희자 황성문
- ▶1만원 : 강문구 공배선 김경남 김묘란 김종홍 김진 문학란 박수현 박신자 박은아 성준복 송병기 송승 유영상 유진아 유창호 이경원 이명숙 정민재 조순옥 허미라

<불교종합병원건립기금>

- ▶국제정보대학원2기수료생 3천만원
- ▶동국로얄한외과대학 12,031,010원 (USD10,000)
- ▶차대법륜(신도) 12,775,370원
- ▶1천만원 : 염영하(대학원 한의학과), 황봉국(각인정사 신도)
- ▶5백만원 : 윤경숙(불교대학원, 반월개발 이사) 김복순(경주국사학과교수), 이순용(웅진신문, 영각사)
- ▶경주미술학과 1,050,000원
- ▶1백만원 : 고수명(동문), 권영익(산업기술환경대학원총) 김육년(경주병원 신경과 교수), 박문기(종호스님,신학과 교수) 박동주(웅해, 적선사주지) 배희선(법학6졸,경찰청 전산통신관리관) 오창석(포항병원 안과교수), 오정숙(삼보법회 신도) 황미희(불교신도), 장이현(경주정보통신공학과교수) 하 성(경주사회체육학과 교수), 한상일(경주 국악과 교수)
- ▶日本光明修養會 989,130원(10만엔)
- ▶김해자(신도) 52만원
- ▶50만원 : 신상호(산업기술환경대학원총) 이병혁(산업기술환경대학원총) 하경민(경주병원 임상병리과교수)(합150만원)
- ▶30만원 : 부종배
- ▶20만원 : 김영호 백암용화사 적선사신도회
- ▶12만원 : 노금순
- ▶10만원 : 김순녀 김자은 김효신 이순돌 이영인 이옥순 정유분 최반야행 최기원 최홍섭 한희자 황영중

<동국사랑기금>

- ▶정성호(경주입학과정) 49,900원, 전성중(경영96영학) 7,420원
- ▶김종규(100주년사업본부 경주지부) 23,120원, 익명 26,770원
- ▶황영란(경주) 30,320원

<장학기금>

- ▶불교대학원총동맹회 3백만원, 삼성캐피탈 50만원
- ▶전영일(건축토목공과과교수) 2백만원 - '건축공과과장학금'
- ▶임규영(경제75졸,강원프라스틱 대표) 1백40만원 - 'TODE장학금'

<특정목적기금>

- ▶히말라야원정대지원금 현대증권 3천6백만원, (주)두산(대표 김철중) 3천5백만원
-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연택) 5백만원
- ▶경주식림원건립기금 권은주(불교아동학과 교수) 5백만원
- ▶김영길(경주불교학과 교수) 1백만원
- ▶구농동우회기금 이운영(동문) 1백만원

<수증물품>

- ▶이병렬(조경89졸,정목개발 대표)경주캠페르내 벤치의자 10개 기준 - 278만원 상당

생협 우정 장학금

생협에서는 본교 학부생 조립원을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해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중 교내·외 장학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생협 우정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특히, 매년 1회 지급했던 것을 1999년부터는 년 2회(1학기, 2학기)로 확대 지급합니다.

1. 지급대상 및 장학금액

- 1) 지급대상 : 본교 학부생 및 조합원 22명(1학년 제외)
- 2) 장학금액 : 기성회비 전액(W543,000)

2. 지급절차 및 일정

- 1) 서류 접수 기간 : 99년 4월 6일(화) ~ 4월16일(금) 오후 5시까지
-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생협 사무국(혜화관 1층)
- 3) 장학금 지급
 - 가. 지급일시 : 4월 20일(화) 오전 11시
 - 나. 지급장소 : 생협회의실
 - ※ 장학금액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온라인 입금 예정

3. 신청자 자격조건

- 1) 보호자의 재산세 납부액이 5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2) 학교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및 융자 혜택을 받지 아니한 자
 - 3) 학교 장학규정에 미달되지 아니한 자
- ### 4. 구비서류
- 1) 장학금 신청서 1부(생협 양식)
 - 2) 보호자(동복금 조달 및 가족부양자) 지방세(미)과세 증명서 1통
 - 3) 보호자 소득세 납부 증명서 또는 영수증(급여 생활자는 98년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 4) 주민등록등본 1통
 - 5) 성적증명서 1통
 - 6) 보호자 은행 통장 사본 1부(장학금 수령 통장)
 - 7)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8) 자연재해피해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9)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해당자에 한함)
 - 10) 직계 가족 입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4·19기념

4·19를 기념하고 동국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동국인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캠캠퍼스 제30회 4·19기념 등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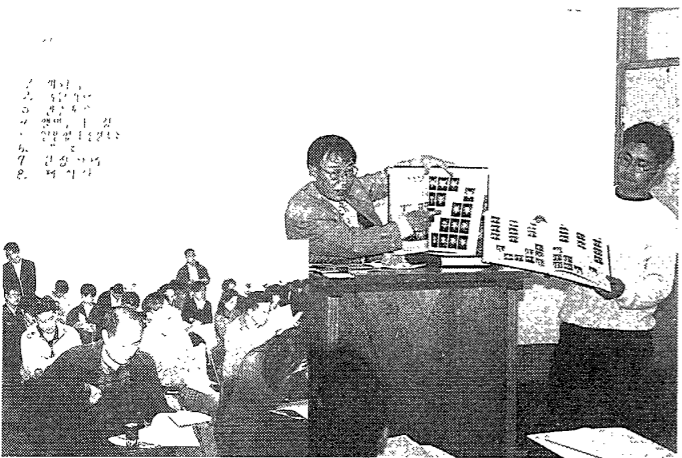
- 1. 열 시 : 99. 4. 16(금), 09:00~17:00
- 2. 장 소 : 북한산(집결장소 : 4·19 국립묘지)
 - 시내버스 : 8번, 6-1번, 16-1번, 8번, 8-1번, 23번, 28번, 333번(국립 4·19묘지 입구에서 하차, 도보10분), 27번, 127번(우회함)
 - ※ 4·19 국립묘지 앞에서 하차(도보 3분)
 - 지 하 철 : 4호선 수유전철역(마을버스 및 학교버스 이용)
 - 학교버스 : 수유전철역 5번출구 삼성증권앞 ↔ 4·19국립묘지 입구(운행시간은 08:10~09:00일)
- 3. 등산경로 : 4·19 국립묘지 → 대동문 → 북한산정(정상) → 위문 → 북한산정 매표소 → 북한산정 매표소 주차장(시상식 및 폐회식)
 - ※ 등산로에 표시리본을 부착하였으니 산행시 표시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참가대상 : 교·직원, 학생, 동문, 법인 등 전 동국인
- 5. 행사내용 : 4·19 기념식, 등산대회 및 시상식
- 6. 팀 구성
 - 가. 4인 1조 : 학(부)과, 계열, 동아리, 동문회, 대학원, 교직원, 혼성조 등 자유롭게 구성
 - 나. 학과단체팀 : 5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교수 2인 이상 참가
 - 다. 동아리단체팀(30주년 특별팀) : 3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도교수 참가가산점 부여
 - 라. 행정부서팀
- 7. 시 상
 - 가. 4인 1조팀
 - 1) 최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자연보호상(12명)
 - 2) 30주년 행운상 : 행사에 참가한 4인 1조팀을 추첨하여 "금강산 관광" 티켓 지급 (※ 단, 교·직원은 시상에서 제외됨)
 - 나. 학과단체팀(6팀) : 금상(W1,000,000), 은상(W500,000), 동상(W300,000)
 - 다. 동아리단체팀(3팀) : 금상(W500,000), 은상(W300,000), 동상(W200,000)라. 특별상(행정부서상, 3팀) : 금상(W500,000), 은상(W300,000), 동상(W200,000)
- 마. 참가자랑상 : 시상식때 참가자랑에 참여한 모든 동국인
- 8. 접수기간 : 99. 4. 1(목)~4. 14(수) 09:00~17:00
- 9. 접 수 처 : 가. 학과단체팀 : 각 단과대학 교학과 나. 4인 1조팀, 동아리단체팀 : 학생과(본관 3층)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과(2280-3047.8)로 문의바람.

생활협동조합이사장

학 생

졸준위, 업자선정 투명성 논란

졸업앨범 공개입찰 방식도입 등 근본적 대책 필요



명성사진관 대표 이상형씨가 앨범제작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99학년도 졸업앨범 제작권을 둘러싸고 경주지역내 천연사진관과 명성사진관이 경합을 벌인결과 48명의 졸업준비위원 중 28명이 투표해, 16표를 얻은 명성사진관이 선정되었다.

지난 9일 학생회관 4층 동아리 연습실에서 실시된 업자선정을 위한 투표에는 4학년 각학과 과대표들로 구성된 졸업준비위원과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이시영·팀4) 집행부들이 각각 참여했다.

투표 전 명성사진관측에서는 개인스냅(11X14)사진과 액자를 졸업자들에게 지급한다는 제안을 했으며, 명성사진관과 경합을 벌인 천연사진관측에서는 개인스냅(8X10) 사진과 증명사진을 졸업생들에게 졸업앨범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다는 제안을 했었다.

명성사진관이 선정된 이유는 경쟁당사자와 비슷한 가격임에도 액자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다.

그 외의 제작조건은 두 사진관 모두 동일함대 조건을 살펴보면(약 1천5백부를 기준) △문수=430-470쪽 △표지=비단표구 △기증부수=1백부 △재배=실양장 재배 △4절판 로알 규격(28X35) △지질=150파운드 로알 아트지 △인쇄=오프셋 4도 인쇄 △액작업=100% △8X10" 개인스냅 포함 등이다.

한편 졸업준비위원의 자격이 4학

년 과대표로 한정되어 있는 회의를 졸업앨범 제작 업자선정 이를 전인 지난 7일 1차 총회에서 졸준위 집행부까지 인위적으로 포함시킨 것에 대해 학생회의 투명성 차원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투표 이틀전 유권자가 된 7명의 졸준위 집행부의 의사가 업자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일고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업자선정 방식은 수의 계약도 공개입찰방식도 아니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따라서 졸준위는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다음 있을 졸업앨범 업자선정에 공개입찰을 도입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졸업준비위원회에 졸준위 집행부를 포함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박양우 기자 dg19711437@mail.dongguk.ac.kr

도서관, 해외학술자료 이용교육 실시

WOS, EBSCO Host 등 주요학술지 자료 ... 13일부터

도서관(관장=이갑득·화학) 멀티미디어실은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이용교육을 내일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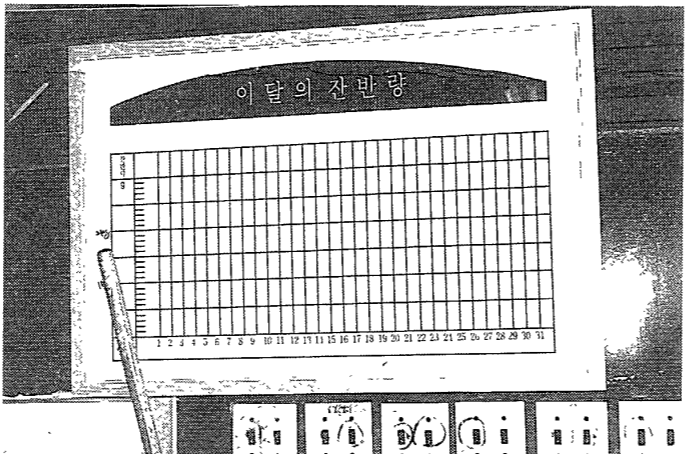
교수·조교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올해 새롭게 추가된 △WOS(Web of Science)=과학, 기술, 사회, 인문, 예술 분야를 비롯해 기존의 해외 학술자료인 △SearchBank = 인문, 사회, 경영, 경제, 컴퓨터 △IDEAL =

아카데미 프레스사의 학술지 1백75종 △EBSCO Host = 인문, 사회, 과학, 경영, 경제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룬다.

교육시간은 △13일 = 오후 2시, 5시부터 각각 1시간 △14일 = 오전 10시, 1시, 4시부터 각각 1시간씩이며 장소는 도서관 3층 교육매체실에서 실시한다.

교육과 관련해 멀티미디어실 관계자는 "새롭게 추가된 해외학술

자료의 경우 이용료가 연간 약 7천여만원의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이번 교육을 계기로 좋은 자료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이용방법을 잘 몰라 사용하지 않았던 학내 구성원들의 효율적 이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용지물... 지난 3월초 학생회관 식당의 새단장과 함께 마련된 전만방표시판에 전만방이 기록되지 않고 있다.

김미영 기자 dg19810273@mail.dongguk.ac.kr

동연, 오는 13일 대표자회의 개최

동아리 연합회(회장=이건상·해방물짓)는 1학기 임시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오는 13일 오후 6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학생회관 4층 동아리 연습실에서 열릴 이번 회의의 상정 안건을 살펴보면 △동아리 등록 및 제명에 관한 건 △예쁜 동아리 방 선정 △회칙 개정 등이다.

이날 회의는 1학기 임시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오는 13일 오후 6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김미영 기자 dg19810273@mail.dongguk.ac.kr

새학생증 7일부터 배부

장학과(과장=하정윤)는 지난 7일부터 99학년도 새 학생증 1차분 배부하고 있다. 2000년도 신입생 학번 문제로 새로 발급된 이번 학생증은 각 학과 조교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직접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주까지 모두 지급될 예정이다.

학생증 발급과 관련해 한병모 계장은 "신입생은 지급되는 즉시 도서관 도서 대출을 할 수 있으며, 재학생은 5월부터 새 학생증으로 도서 대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자연인 대동제 개최

자연대 학생회(회장=박재형·생물4)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자연대 해오름식 및 자연인 대동제를 개최했다.

일정은 △7일=해오름식(길놀이, 개회식, 축사, 출범선언, 고사), 자연인 대동제 전야제 △8일=체육대회 예선, 자연인 한마당(노래자랑, 커피선발 등) △9일=체육대회 결선 등이다. 이에 대해 박재형 회장은 "자연인 모두가 새롭게 한뜻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경주캠에서 열린 제11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회

"경주, 2천년 첨단과학의 시작 알린다"



임시총회 후 학회구성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년 고도의 정기가 묻어나는 이곳 경주 동국대학교에서 다가오는 2000년 첨단과학의 시작을 알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한국 정보처리학회의 주최로 열리는 '제 11회 춘계학술 발표대회 및 임시총회'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본교 원효관에서 개최돼 본교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하였다.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 정보처리학회는 컴퓨터·통신·정보에서 미디어에 이르는 각종 첨단분야의 학술회의와 한국 차세대 정보산업분야를 주도하고 있으며, 금융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 연구회 등 현재 13개 분과 연구회로 나뉘며 매회 정기적으로 논문을 발간하고 있는 저명한 국내 학회로 알려져 있다.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크게 △논문발표 △초청강연 △경주 관광투어 △리셉션 △튜토리얼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논문주제는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및 HCI △분산 및 병렬 처리 △소프트웨어 공학 등 22개 분야이며 15여분 발표후 5분 질의답변식으로 3백 50명이 발표를 했다.

초청강연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과 컴퓨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철연(한국전력

원자력 본부)소장이 강연을 했으며, 최근 학계나 사회 전반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항을 다뤄주는 튜토리얼은 △정보 가전을 위한 홈 네트워크=류근호(인제대)교수 △CORBA-분산 객체 통합 기술 = 김영욱(성결대)교수가 각각 발표했다.

특히 본교에서는 변정용, 임재걸, 이계영, 조영석, 이태경, 김의창, 도재수, 조태경, 오세만, 최은만, 최병석 교수 등이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의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계영 교무처장은 "경주캠을 장소로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몇 개월전부터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 학내 교수님 및 구성원들이 대단히 애를 썼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 참가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행사 안내에 관한 홈페이지, 경주의 주요 교통편 및 숙박시설에 관한 안내책자 등을 마련했다.

"학교 홈페이지 접속건만 하더라도 1만여건이 넘었으며, 행사의 규모가 큰만큼 학교의 임지를 알리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행사 조직위원회 측은 밝히며 99학년도 본교가 정보통신우수학교로 선정된 만큼 학내구성원들의 관심있는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정희정 기자 dg19711782@mail.dongguk.ac.kr

호전무대

유고(?)

○...서울캠 모 강의시간에 교실을 나가려는 교수님과 남아서 수업을 들겠다는 학생의 실각으로 수업이 지체되었는데, 알아본즉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생긴 '강의실에서 휴대폰이 울리면 이름을 말하고 밖으로 나가기' 규칙이 순응하지 못하겠다는 학생 때문이라고.

말일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신문화로 강의마다 벌제금, 결석처리제, F학점제 등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된 실정이다. 이에 본 회전문대자 알, "그래서 요즘 You Go(유고)가 뜬다니까..."

물살(?)

○...도서관은 지금 물살을 얇고 있다(?)

내용인즉 개강 후 더욱 북적해진 경주캠 도서관이 학내에서 치러지는 각종 행사 및 체험식 등으로 인해 제대로된 면학 분위기를 맞보지 못하고 있다고.

대우나 이에 합세한 교문 앞 이동통신 판매의 물결은 학우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만 한다는데, 이에 도서관을 나서서 한 학우 알 "본의 아니게 오늘도 그냥 나옵니다."

비상예고

○...지난 9일, 은방울 원효관 3층 수업 중 일부 강의실이 정보처리학회 발표장으로 사용돼 이를 모르고 힘겹게 강의실로 올라간 학우들은 영문을 모른채 강의실을 찾아 헤매느라 진땀을 흘렸고, 이로 인해 중간고사로 수업을 빠지지 않으려는 학우들의 불안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으니.

이에 강의실을 돌아서는 학생 알 "배양간 강의실에도 수업은 진행되는가?"

월권

○... "한국에서 인권은 월권!" 대통령이 세계인권선언을 받은 나라에서 인권보장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이를 눈치챈 정 정부는 인권법을 제정하여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의 인권위원회가 공권력 앞에서 제구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쁜은 회의적이다.

이에 본 회전문대자 알, "법무부 앞에 인권 없다!"

총대, 대의원 선거...19일부터 감사

총대의원회(의장=이상해·회계4 이하 총대)에서는 지난달 24일까지 단과대 대의원 후보자 등록을 받아, 30일 총대 사무실에서 이미 당선된 현의대(서재태·분1)를 제외한 7개 단과대 대의원 선거를 치렀다.

단과대 대의원 투표결과 △분문대=조희재(분교4) △인문대=양승천(일문3) △자연대=이우민(생물4)

△법정대=정일신(국제관계3) △상경대=문기정(국제경제3) △의대=배정민(분2) △이부대=김정호(경영4) 선출됐다.

한편, 지난 9일 각 단과대 및 차치기구들의 감사지료를 총대 감사국에 제출 마감했으며, 12일 공문을 통해 감사 대상을 날짜별로 통보한 후 19일부터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국인 등산대회

등산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동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의 많은

경주캠퍼스 제19회 4·19기념 등산대회

- 대회일정
 - 가. 일시 : 99. 4. 16(금), 09:00 ~ 18:00
 - 나. 장 소 : 경주 남산일일
 - 다. 등산코스 : 봉일전 => 아수대 => 정상 => 전망대(중식) => 포석정 => 삼봉
 - 라. 참가대상 : 교·직원부, 동문부, 재학생부, 동아리부, 금강생활관부
 - 마. 참가신청 : 99. 4. 6(화) ~ 4. 13(화)까지
 - 바. 신청장소 : 백상암 앞 산악부 특별캠(우천시 학생회관 로비)
 - 사. 팀 구성 : 팀당 4명(팀장 1명, 팀원 3명)
- 행사일정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09:00 ~ 09:30	번호표,모자 등 준비물 배부	
09:30 ~ 10:00	개회식 및 선발대, 심판위원 출발	
10:00 ~ 10:30	출발시작(10초 간격)	
10:30 ~ 12:00	출발중요	
12:00 ~ 12:30	첫 출발팀 중식지 도착(산상테스트 배부)	중식지
12:30 ~ 12:40	마지막 출발팀 중식지 도착	정망대
12:40 ~ 13:40	중식 및 자유시간	
13:40 ~ 14:00	선발대, 심판위원, 폐회식준비위원 출발	
14:00 ~ 15:00	오후코스 출발시작(산상테스트 회수)	
15:00 ~ 16:00	출발팀 심통(도착지) 도착	
16:00 ~ 17:30	정기차량 및 시상, 폐회	
- 시상내용
 - 가. 최우수상 1팀, 용맹정진상 3팀, 코끼리상 3팀, 연꽃상 3팀, 자연보호상 3팀, 특별상
 - 나. 특별상은 인원통원이 가장 많은 단체를 선정한다.
 - 다. 정기차량 시상은 별도로 시상한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과(770-2047)로 문의바람.

처 장

도서관 투어 실시

99학년도신입생들을 위해 도서관 투어를 실시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자	대상학부(과)	시 간	대상인원	연 락 처
4.12(월)	미술학부	10:00 ~ 10:50	50	2510
	조경학과	11:00 ~ 11:50	55	2521
	관광경영학부(야)	13:10 ~ 14:00	53	2497
	관광경영학부(주)		70	
4.13(화)	컴퓨터정보통신(A)	14:10 ~ 15:00	60	2522
	역사학부(C)	14:10 ~ 15:00	41	2169
4.14(수)	영어영문	12:00 ~ 12:50	60	2130
	가정교육	12:00 ~ 12:50	42	2527
4.19(월)	컴퓨터정보통신(야)	16:10 ~ 17:00	40	2522
	법정학부	11:00 ~ 11:50	102	2302, 2350
	כל교학부	14:10 ~ 15:00	60	2109

정보검색실 이용 제한 안내

99학년도 신입생 도서관투어의 일정으로 인해 정보검색실의 이용을 제한하니 이용자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일자	시간	10:20 ~ 10:50	11:20 ~ 11:50	12:20 ~ 12:50	13:30 ~ 14:00	14:30 ~ 15:00	16:30 ~ 17:00
4.12(월)		●	●		●		
4.13(화)						●	
4.14(수)				●			●
4.15(목)			●				
4.19(월)			●			●	

경주캠 도서관장

5부제 실시

1. 승용차 5부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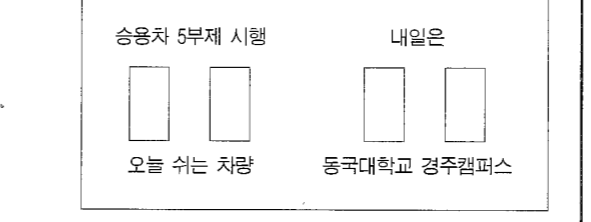
가. 취지 : 대중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함으로써 정육을 생활화 한다.

나. 방안 : 개인승용차 5부제 시행에 적극적으로 동참

해당요일	월	화	수	목	금	비 고
해당차량	1, 6	2, 7	3, 8	4, 9	5, 0	차량 끝 번호

다. 안내표지 설치

- 장소 : 정문 입구
- 모형



경주캠 사무처장

교내 출입차량 일제조사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내 출입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출입차량을 조사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 가. 교내 출입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나. 교내 주차공간 활용 및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 기간 : 99.4.8(목) - 4.16(금)

- 대상
 - 가. 교직원 및 감사, 조교의 출·퇴근 차량
 - 나. 동·하고 학생차량
 - 다. 업무상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외부인 차량

- 방법
 - 가. 교직원 및 감사, 조교의 차량은 해당학부(과), 부성에서 파악.
 - 나. 학생의 등·하교 차량은 학부(과)의 사무실에서 파악.
 - 다. 업무상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외부인 차량은 관련부서에서 조사.

경주캠 사무처장

동약로



강냉이 죽 VS 커피 한잔

“맛이 어때니?” “아무 맛도 안나. 어떻게 이걸 먹고살 수가 있지?” “불겉겉 경 한 게 목구멍 넘기기가 힘들다”

지난주 금요일 상록원 앞에서 사과대 학생회 주최 북한 어린이 돕기 ‘금요일 점심 굶기 운동’이 벌어졌다. 특히 이 날은 북한에서 그나마 ‘돈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는 희박한 강냉이 죽을 끓여 종이컵에 담아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배고픔을 표현한 퍼포먼스를 통해 북한의 현실을 알리는 자리였다. 북한에서는 이미 3백명 이상이 기아에 시달리며 사망했으며, 6살 미만 유아 사망률이 43.6%로 이제 갓 태어난 아이마저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

“우리 돈으로 1백원이면 한끼, 1천원이면 1주일, 5천원이면 북한 어린이 한 명의 한 달 끼니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10원 짜리 봉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북한 어린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쌀 푸대처를 몸에 걸친 학생이 모금함을 들고 식당을 찾은 사람들에게 모금을 권하지만 섣뜻 봉전 한 뼚을 넣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한 손에는 5백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모금함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전시돼 있는 앙상한 뼈밖에 남은게 없는 북한 어린이의 사진이 무색해 질 정도다. 우리가 너무 쉽게 커피를 마시고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담배를 피우고 오락 한 판을 즐기는 사이에 한 반도의 북쪽에서는 단맛도 짠맛도 없는 강냉이 죽 한 그릇을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통일된 한민족의 미래를 이끌어 갈 북한 아이들이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나 밝고 힘찬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주는 일은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백원짜리 커피 한잔과 백원짜리 강냉이 죽 한 그릇. 같은 모양의 종이컵 안에 담겨있는 너무나 상반된 ‘기호’와 ‘생존’의 두 가지 가치는 우리가 뛰어 넘어야 할 또 다른 분단선이 아닐까

정리하고 결사 반대한다

지하철 총파업 시작으로 전노동계 단결

용담역의 한 벽에 붙어 있는 ‘천만노동자의 해방기관지’란 구호처럼 서울 지하철 노조가 과연 4·5월 노동운동의 기관차가 될 것인가?

지난 7일 오후 8시 서울 용담역 근처 지하철역에서는 제7차 서울지하철노조총파업 야간 총회(이하 지하철 총회)가 열렸다. 지하철 조합원, 학생 등 약 5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임승규 지하철 노조 사무국장은 “서울지하철 노조의 총파업 투쟁은 단순한 일개 노조의 파업투쟁이 아니라 공공연맹을 비롯한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자, 천만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대변하는 파업투쟁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입증하듯 이날 총회에서는 과거노련과 공공연맹 등의 대표들이 참석, 연대투쟁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민주노총 이갑용위원장은 주제연설에서 “지하철노조의 파업투쟁이 현 시기의 노동운동에 미치는 파급력은 엄청나다”며 “민주노총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총파업 선언 발언에서 석기준 위원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나타낸 뒤 “△노동시간 단축 △산별 교섭 보장 등의 민주노총 4대 요구사항과 △노조전일제 임금지급 △단체협약 실효성 보장 등 공공연맹 6대 요구안,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의 3대요구사항인 △구조조정·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 통한 고용 창출 △지하철 운영체제 개혁을 이룰때까지 파업투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노조는 지난날 3일 2차교섭을 가진 뒤 24일부터 3일간 파업 쟁의 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결의했다. 그후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노정간담회에서도



지난 7일 열린 서울지하철노조 총회에서 노동자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따라서 지하철 노조는 19일 파업에 대비해 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기금을 위한 특별회계전용, 공사의 손배청구시 조합원간 연대책임, 쟁의기간중 복귀선동자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오늘(12일)부터 전 현장에서 지하철 지연운동 등 ‘준법투쟁’을 벌여나간 뒤, 오는 17일 민주노총 총력 결의대회에 참가하고 18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뒤 19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또한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도 14일까지 단위노조별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완료키로 했다. 이러한 움직임에서 주목되는 점은 지난 96년 서울지하철과 한국통신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공공부문 5개사 노조의 연대투쟁이 재연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공공연맹 관계자는 “96년의 연대투쟁이 각 단위들의 현안을 가지고 시기만 통일했던 것이었다면, 이번은 정부의 구

조조정에 대한 실질적인 공동대응”이라며 “이번 투쟁은 사실상 공공부문 노조들의 첫 공동투쟁이 될 것이며, 향후 공공 부문의 교섭형태나 조직발전 전망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6일부터 30일까지를 ‘노동절 투쟁 총력조직기간’으로 설정해 지역별·계층별 집회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고 5월 1일 ‘메이데이 총파업’을 계기로 민주노총 소속 전 노조, 각종 사회운동 세력들과 민중생존권 투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 9일 정부와의 실무협상을 벌인 한국노총도 ‘노조전일제 임금지급 금지 법 조항’과 ‘노사정위 관련법’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 조건부 탈퇴를 결정함에 따라 노동계의 파업투쟁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진다.

송재훈 기자
jaehun79@cakra.dongguk.ac.kr

경찰, 캠퍼스내에서 학생치고 뺑소니

학원사찰 의혹... 진상규명 철저히 해야

지난 9일 오후 3시경 마포구 서강대학교 교내에서 경찰이 학생을 차로 치고 도주하다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서강대학교 조규정(정의4)군이 무릎아래 심줄이 끊어지는 중상을 당해 인근 두리병원으로 이송·치료중이며, 박홍필(물리4)군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는 학생을 미행하던 승용차가 서강대학교 교내로 들어왔다는 제보를 받은 이 학교 총학생회에서 이들의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총학생회 교육국장 조규정군 등을 치고 달아나다 잡힌 것이다.

운전자는 경찰청 보안4과 소속 이창용 경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2명의 경찰관은 사고직후 학생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신병이 넘겨져 마포경찰서로 이송됐다.

한편, 서강대학교 총학생회는 사고와 관련 이날 오후 6시경 마포서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들과 충돌, 많은 학생들이 부상을 당하고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서강대 총학생회는 “경찰이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집회를 사찰하러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부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법원판결

국보법 철폐 논의 본격화 움직임

96년도 5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이후 한총련에 대해 강력한 공권력을 휘둘러 왔던 검찰의 발목을 잡는 판결이 대구 지방법원에서 내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총련은 6기 한총련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된 5기 한총련 조직에 대한 이적단체규정 철폐 △7기 한총련대의원에 대한 탄압중지 △정지수배해제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의 의의는 ‘이적단체의 여부’는 조직강령의 내용이나 활동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는 재판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6기 한총련의 경우 대한민국의 위상을 미국의 식민

지로 전락시켰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외노선과 일치하는 점이 인정되나 조직적으로 북한과 연계된 활동을 벌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적단체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 천리마에게 찬양고무죄를 적용한 일부조항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재야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 움직임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의 개정 논의를 더욱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미숙 기자
ionia@cakra.dongguk.ac.kr

민간통일운동 토론회

문익환 목사 방북 10주년을 맞아 지난 9일 ‘문익환 목사 방북 10년-민간통일운동 10년’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성공회 대성당 교육관 강당에서 치러졌다.

이장희 외곽어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강만길(고려대 명예교수·경실련통일협의회이사장), 김남식(통일문제 전문가)씨 등이 참가했으며, 토론자로는 서경원(전 의원), 손장래(현 대정공 고문), 신준영(말지 기자), 유완영(주식회사 IMRI 대표) 이승환(통일맞이 사무처장)씨 등이 자리했다. 발제 및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통일운동의 회고와 전망

강만길 90년대 북한 정권이 김영삼 정

부와 정상회담에 합의 했다. 하지만 김일성의 사망으로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못했고 또한, 김주석에 대해 남한이 조문을 하지 않아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되면서 남북관계의 주도권이 미국에게 넘어갔다. 당시 민간통일운동진영은 조문운동을 광범위하게 일으켰어야 했다. 이후 동해안 잠수정 출현등의 사건이 터지면서 김영삼 정부의 남북관계는 노태우 정권때보다도 후퇴했다. 현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정책 및 통일정책은 변화했다. 하지만 국보법이 존속하고 있어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이 근본적인 한계를 맞고 있다. 따라서 민간통일운동진영은 앞으로 남북합의서 이행운동과 함께 국보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통일운동의 민족사적 방향

김남식 민족의 자주권 확보 없이 참된

근대민족국가건설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통일은 우선적으로 성취되어야 한다. 가슴아프게도 우리는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민족의식의 파괴를 가져왔다.

하루속히 파괴된 민족의식을 되살려 민족자주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를 갈라놓은 것은 외세라는 것을 인식하고 민족의식의 파괴는 강요된 이데올로기때문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그레야 사상과 제도를 뒤로하고 남북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이뤄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민족중심의 통일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고 사상과 제도의 통일을 뒤로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연방제가 있다.

서경원 현재 우리는 북한에 대해 너무 모른다. 한반도의 역학 관계를 놓고 볼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주의식이다.

또한, 통일 운동의 한복판에는 노동자가 서야한다. 지식인들이 하는 것은 위선뿐일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손장래 남한은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전쟁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로 미뤄볼때 오늘날 과연 우리에게 같은 민족으로서의 의식이 살아있느냐는 의문이 든다.

또한 이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통일 염원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남녀가 만나 결혼할때에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처럼 남북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유완영 통일에 대한 담위성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같은 민족으로서 자기자리에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갈때 해법은 나올

것이다.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신준영 현재는 민족의식 위기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최근 예를 보더라도 여업협상에서 경제수역을 나눌때 독도가 아닌 울릉도가 기준이 되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문제가 그리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 이는 때마침 일본으로부터 30억 달러의 외자를 끌어 온 것과 어획량 감소등에 관심이 몰려있었기 때문이다.

민족의식을 공고히 하기위해 경제논리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승환 현정부의 통일정책 추진과정에 가장 큰 문제는 이중적인 모습이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하면서도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으로 유지시키고 있다. 이러한 것은 모순이다.

정리=남대철 기자
eniac97@cakra.dongguk.ac.kr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Y2K 문제 재조명 **논단**

과장된 위기조성이 Y2K 해결 걸림돌

새로운 천년의 시작인 2천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지구촌은 일련된 들떠있는 것처럼 보인다. 각 언론매체는 지난 1백년의 회고 특집을 마련하는 등 지난 세대의 고통을 훌훌 털어 버리고, 21세기는 마치 희망이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란 영속적일텐데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다고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는 것처럼 이전과 다른 새로운 희망이 오는 것도 아닐 것이다. 다만 우리는 지난날을 반성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 21세기를 좀 더 인간다운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21세기에 떠들석한 것 중의 하나가 흔히 Y2K라 불리는 2천년도 연도 표기 문제이다.

언론은 마치 2천년이 되면 Y2K 문제로 인해 핵무기의 폭발 등으로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며, 은행 전산장애로 인하여 2천년 1월 1일부터 며칠간은 현금인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열을 올려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상호간의 경쟁으로 인한 언론의 과장 보도를 수없이 경험해 보았다. 밀레니

엄 버그도 이러한 것 중의 하나라고 필자는 이해하고 있다. Y2K에 내재된 실제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고 좀더 차분한 대처를 행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밀레니엄 버그를 생각해보면 인간이 해안을 가졌다고는 하나 그 능력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가를 알게 된다. 1970년대 말까지 컴퓨터 전문가들은 2천년이 오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1900년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즉 Y2K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우리들의 습관에서부터 기인한다. 흔히 우리는 1999년이라 하기보다는 '99년이라 한다. 이러한 습관에 젖어서 컴퓨터 입력과 처리부에서 연도를 두 단위로 표기하였다. 우리가 선행배를 따질 때 학번을 묻는다. 99학번과 96학번은 99-96=3이라는 수식에 의하여 3년의 선행배 사이임을 알게 된다. 그러나 2천2년 입학생과의 관계는 02-96=-94라는 이상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밀레니엄 버그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의 해결방안은 일견 상당히 간단해 보인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모든 연도 표기를 4자리 이상으로 표시하고(9999년)이 되면 또 다른 문제

를 야기하겠지만, 프로그램 종로인식 방법을 바꾸면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Y2K문제 해결은 기술의 문제가 아닌 적용상의 문제가 더 큰 것이 현실이다. 즉 '모든 연도표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고쳤을까?'라는 의문이 남으며, '반약 실수로 빠뜨린 하나가 문제를 야기시킬지는 않을까?'라는 근심이 남게 된다. 즉 해결책은 알고 있어 이를 완벽하게 이행하는 작업의 품질이 밀레니엄 버그 문제의 화두인 것이다.

밀레니엄 버그로 인한 전산장애는 컴퓨터가 계산 역할을 맡고 있는 은행 등의 컴퓨터의 문제(이는 사후 수정이 가능하기에)라기 보다는 컴퓨터가 실 시간의 통제 및 제어 역할을 맡고 있는 제어시스템에서의 문제가 더 크다고 인식된다. 통상 제어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ROM에 기억되어 있어 사용자가 수정할 수 없다. 또한 오래된 시스템은 제조회사마저 사라져 이를 테스트하거나 교체할 수도 없어 제어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Y2K 문제해결을 위해 전세계의 모든 프로그램과 제어시스템의 점검과 수정작업이 진행중이어서 이에 대한 큰 혼란은



이종욱

경상대 정보관리학과 교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차분하게 각 기관이 소프트웨어 기술자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늘상 그렇듯이 정부는 이를 국가적인 사업으로 인식하여 통제적으로 수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언론은 캠페인적인 시각으로만 이를 홍보하여 일반시민의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는 듯 하다. 이렇게 하루 구조의 차분함이 결여된 상태에서 큰 것은 해결하고 작은 것은 빠뜨려 작은 것이 차후에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면 제2의 성수대교와 삼풍사건이 재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얼마 안 남은 20세기 동안만이라도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특히 제어시스템 중심으로 밀레니엄 버그에 대한 대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언론의 과장 보도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처 방법은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차분하게 각 기관이 소프트웨어 기술자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늘상 그렇듯이 정부는 이를 국가적인 사업으로 인식하여 통제적으로 수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언론은 캠페인적인 시각으로만 이를 홍보하여 일반시민의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는 듯 하다. 이렇게 하루 구조의 차분함이 결여된 상태에서 큰 것은 해결하고 작은 것은 빠뜨려 작은 것이 차후에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면 제2의 성수대교와 삼풍사건이 재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얼마 안 남은 20세기 동안만이라도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특히 제어시스템 중심으로 밀레니엄 버그에 대한 대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인권법과 관련한 논란

“독립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라”

인권법 바로세워 과거 진상 규명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인권법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인권법의 기본안은 이미 작년 9월 25일 법무부에서 발표했으나 당시, 독립된 기구로서 입법화를 요구하는 각 인권단체의 비판이 강하게 제기돼 미뤄지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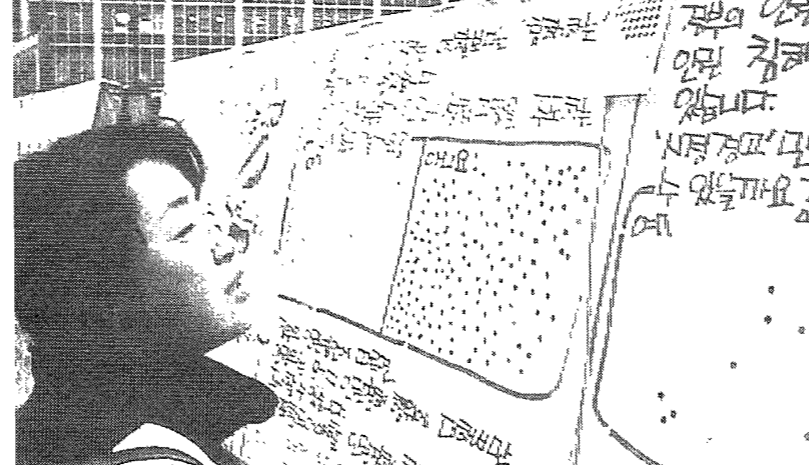
국제 엠네스티 또한 인권법에 대한 법무부측 안에 대해 인권위가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해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반발이 일차 김대통령은 “법무부 안을 무시하고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민간기구를 발족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기준안에서 법다른 변화를 이루지 못한채 법무부에서 안이 통과되고 이어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과 여성 민우회를 비롯한 17개의 인권단체에서는 “출속으로 통과된 인권법은 내용뿐만 아니라 구성 절차에서부터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고 비난하며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 명동성당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지적하는 인권법 현안의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산하에 있어 구조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법안 6조를 살펴보면 '인권법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법무부'임을 명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모든 권고나 의견표명을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에서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법안의 13조 조항은 대통령령에 의거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조항 중 '인권위원회 조직과 운영 예산이 대통령령에 의거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는 대체로 수사기관에 의한 생명, 신체와 자유에 관한 침해 행위 등 8가지 인권침해와 처벌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법률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불법행위들이기에 인권법 제정의 의의가 무색하기만 하다.

사실, 인권법을 가장 시급히 적용해야 할 분야는 바로 과거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에 대한 보상과 진상규명이다. 현직 대통령 또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였기에 국민들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지난 9일 명동성당 앞에 설치된 '인권법안 통과 찬반'을 묻는 가판대에 한 학생이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에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 이뤄졌던 수많은 의문사를 비롯한 인권유린 사건이 긴 역사의 침묵을 깨고 진상이 밝혀지리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현재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인권법은 인권침해 해결과정에서 국익을 해할 수 있거나 수사방법상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이뤄질 우려가 있을 경우 조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의문사와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국가기관의 이해관계에 얽힌 사안들은 피해사실이 접수된다 해도 조사대상이 조사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실이 미궁에 빠지리라는 것

은 어쩌면 당연한 추리일 수 있다.

이처럼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인권법은 결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측면에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30년만의 첫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의 정부는 아직까지 베일에 쌓여 있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의문사에 대해 진상 규명을 이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 산하가 아닌 독립인권기구를 공개 석상에서 민주적인 절차로 구성해야하고 '인권법다운 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마숙 기자
ionia@cakra.dongguk.ac.kr

"총알 인터넷"



딱 클릭하면 딱 접속! 웬만한 검색, 전송은 몇초면 끝!
다운로드 중간에 끊기는 일도 용서가 안돼
이제 인터넷의 세계에서 지루함은 DELETE야
이 굉장한 속도, 광케이블 아니면 꿈이나 꾸보겠어?

광케이블이니까 가능하다!
광케이블 인터넷, 두루넷

광케이블이니까 빛나게 빠르다
다른 느림보 인터넷들은 꿈도 못꾸는 속도
광케이블 두루넷은 대기급 스피드 대용량
파일도 단 몇 초만에 옮김없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광케이블이니까 전화비 없다
전화요금 걱정이 없어 돈바는 인터넷! 광케이블
인터넷 두루넷은 월 98,000원 일종액으로 하루종일,
한달 내내 인터넷을 무한대로 쓸 수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 금액/가정용 서비스 기준)

광케이블이니까 진정한 멀티미디어
광케이블의 속도에서만 가능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생생한 동영상/음질의 주문형
오디오에서 멀티미디어 게시판, 보이시제팅,
영상채널 이벤트까지 실현시켰습니다

광케이블 인터넷
thruNet | 두루넷
http://www.thru.net.com

가인문의/신청 02-3488-8282
자세한 내용 및 서비스 지원은 두루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사설

창간 49주년에 즈음하여

‘신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두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된다. 한쪽은 기념식에 모여 서로 훈장과 상패를 주고 받는 공식행사장의 모습이고, 다른 한쪽에선 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언론의 뼈뿔어진 현황을 반성하고 이를 바로잡기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그것이다. 비록 단발적인 의의이지만 후자가 있어 조금은 다행스럽기까지 하다.

현재 우리나라 신문들은 힘과 돈에 의해 좌우 되는 듯 제대로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방목처리 모습으로 얼룩지고 있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또한 사회 전체가 언론을 하나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언론을 이용하려 하며, 언론 역시 지향점 없이 사회의 요구에 따라 휩쓸려간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원론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제시가 ‘언론 개혁 운동’이 걸머져야 할 중대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어느덧 동대신문도 창간 49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어찌보면 반세기 동안 동국은 물론 우리 현대사를 기록하며 비판하는 저항 언론으로 자리매김 해왔다해도 과언은 아닐 듯 싶다. 하지만, 요즘 동대신문을 비롯한 전반적인 대학신문의 모습은 기성 일간지와 별로 다를바 없다는 느낌마저 들어 스스로 반성하게 된다. 지난 시절 모순된 사회를 개혁조차 부지런히 움직이던 ‘비관성’과 ‘진보성’의 저널리즘은 미약하며 아카데미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 것 같다.

표면적으로는 저널리즘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이념적 대립구도가 모호해짐으로서 그 지향점을 찾지 못해 방향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 대학신문이 가져왔던 전통적인 입장의 유지보다는 달라진 사회에서 독자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점차 모색해 나가고 있는게 지금 대학신문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탄생 반세기를 맞이한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한다. 지금 진정 필요로 하는것이 무엇인가를.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임

지난 7일 국회에서 대선자금과 관련된 비리 혐의를 받은 서상봉 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다. 국민들은 방송을 통해 안방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접하게 됐고, 국회의원들은 무슨 커다란 파업이라도 달성한 것처럼 좋아했다. 국민들의 분노는 국에 달하는 순간이었다.

국민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작년 정치권 사건으로 권력형 비리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법원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버티기 행세하고 있다. 굳이 이름을 거명하자면 김중배, 백남치, 김운환, 이기택, 이부영 의원들이다. 참, 연대에서는 이들을 범정으로 내보내기 위해 ‘정치인 소환 운동’을 펴고 있지만 워낙 ‘확고부동한’ 지위의 인물들이라 ‘우이독정’일 뿐이라고 한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현재 국에 달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면책특권을 남용해 자신들의 일일만을 탐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오죽하랴.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면책특권은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국정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이 권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질러 자기 이익을 채우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어쨌거나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권리를 행사하려거든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책임은 무말뚨 나위도 없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pupress.dongguk.ac.kr
편집인	김주한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부주	김규박	하이텔 · 나우누리 ID dgpupress 천리안 ID dgpupress
편집장	박상관	구독문의 : (02)2280-3491 · 2
편집장	김미경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5가 28		경주캠퍼스 (우)77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80-3491 · 2		팩스 (02)2279-1270
		전화 (056)1770-2088
		팩스 (056)1770-2087

동대신문 역사

동국발전과 함께하는 동대신문으로 거듭날 터

동대신문의 효시는 해방직후인 1947년 창간된 타블로이드 4면의 동국월보이다. 하지만 경제 논문 몇 편이 정치적으로 불순하다는 접등을 들어 배부되지도 못한채 압수, 동국월보는 발행이 중지된다.

4년뒤인 1950년 4월15일 대판 4면 체계를 가진 동대신문 창간호가 발행된다. 하지만 그해 6월 2호 조판중에 6.25가 발발해 발행이 중단되었다.

1952년 6월 피난지인 부산에서 어렵게 타블로이드 4면의 2호를 발간하게 되었지만 조연현 동문의 '동국대학과 나'라는 글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배부되지 못한채 보일러실에서 불태워지고 만다. 이처럼 동대신문은 창간 초반 커다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결국 피난 생활을 접고 서울로 돌아온 1953년 4월, 양주동 교수의 지도로 3호부터 타블로이드 4면의 동국월보를 속간하면서 동대신문의 기반을 다지고 발전해 나가기 시작한다.

동국월보는 1955년 7월7일 '동국시보'로, 다시 1962년 7월6일자에 이르러 '동대신문'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후 동대신문은 1963년 학생들의 학술연구열과 창작의욕을 한층 더 북돋아 참신한 학풍을 수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동대 학술상을, 또 10대 문화도의 의욕을 북돋아 한국문단의 내일을 풍요롭게 하려는 생각으로 전국고교생 문학 공쿠르를 각각 제정했다. 1965년에는 영자신문인 '동국포스트'를 자체지로 인수, 한 가족이 되었으며 1979년에는 경주캠퍼스에 신문사를 개설하여 경주캠퍼스의 소식을 보다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게 되었다.

1986년 들어 기존 학술상에 포함되어 있던 창작문학상을 동대문학상으로 독립시켜 그 위상을 한층 높이기도 했다.

1988년 9월13일에는 전국 대학들중 여섯번째로 지령 1천호를 발행하는 과업을 이루었다. 그리고 1999년에는 기존 한문제호를 한글제호로 바꾸고 8면과 8면과 12면의 교차발행을 실시해 더 다양한 내용을 담아내는 신문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제 동대신문은 오는 15일 49주년을 맞게 되며 지령 1270호에 이르렀다. 오랜 세월 만물이 날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대신문. 이제 49주년이란 세월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자 한다.

새천년이 오고 동국이 1백주년을 맞았을 때 "동국대학교가 이렇게 발전하고 민족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데에는 동대신문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다시보는 만평·만화

東國漫評



848호 1983년 3월 15일자 만평
아니? 83년도에 공간문제?... 콩나물 시루같은 도서관과 식당, 강의실을 풍자하고 있다.

東國漫評



984호 1988년 2월 23일자 만평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정권이 교체되었으나 그 정권이 다를 것이 없고, 그 법에 그 나물이라고 풍자한 만평.

東國漫評



1064호 1990년 9월5일 만평
국가보안법과 그 피해자인 양심수가 그 당시에도 커다란 사회문제였던 듯.

東國漫評



1135호 1993년 10월27일 만평
당시 쌀시장 개방과 자연재해, 그리고 농업정책 실패등이 농민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런데 요즘이라고 더 나은 것은 별로 없는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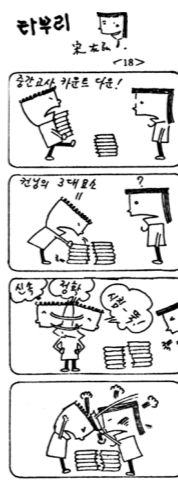
1186호 1995년 10월 30일자 강성수의 이야기
당시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리가 폭로되는 과정에서 그가 했던 뻔뻔스런 거짓말을 풍자.

1180호 1995년 1995년 9월 4일자 만화 토박이 16회
선거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야당 표적수사를 비판한 만화.



925호 1985년 10월 29일 만화 소노공(笑怒公) 34회
학원안정법 제정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그 시절

938호 1986년 4월 15일 만화 여로니 8회
시할때만 되면 볼때는 복사실. 10년 전에도 마찬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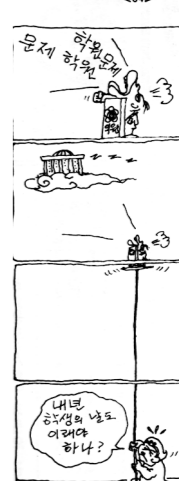


771호 1980년 10월 21일자 만화(타부리 18회)
예전이나 지금이나 시험 때마다 빠지지 않는 컨닝.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모습은 여전히 시험과 컨닝은 바늘과 실의 관계?



831호 1982년 8월 31일자 만화(백성군/상야 양 22회)
역시 장학금을 타는 길은 멀고도 험하며 그 끝은 도서관으로 연결되어 있다는게 지금도 마찬가지.

웃찾사



여로니



정리=남대철 기자
eniac97@cakra.dongguk.ac.kr

동대신문이 배출한 문단의 별들

동대신문은 '전국 고교생 백일장' '동대 학술상' '문학상'을 매년 개최, 예비 작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963년 '전국 고교생 문학공쿠르'란 이름으로 시작해 올해로 37회를 맞는 전국 고교생 백일장. 작년에 세상을 떠난 '혼불'의 작가 최명희, 본국 국문과 출신이기도 한 시인 문정희, 어른들을 위한 동화 '연어'를 비롯, 시집 '모닥불' '그리운 여우' 등의 안도현 등이 눈에 띄는 역대 백일장 입상자들이다.

최명희(전주 기전여고)는 제2회(1964년) 대회에서 소설부문 장원을, 다음해(1965년) 대회에서는



소설부문 가작을 수상했다. 문정희(진명여고)는 제3회(1965년) 대회에서 시 부문 장원을 수상했다. 안도현(대건고)은 제17회(1979년) 대회에서 우수시작을 수상했다.

같은해(1963년) '동대학술상'의 창작문학상 분야로 속해있다가 따로 독립한 '동대문학상' 역시 예비작가들의 잠재력을 일깨운 계기가 되었다. 역대 수상자 중 조정래, 김초혜, 이원규, 정채봉 등이 눈에 띈다.

조정래(당시 국문2)는 제1회 대회에서 소설 '비탈진 음지'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초혜(당시 국문4)는 제2회 대회에서 시 '길'로 본상을 수상했다. 이원규(당시 국문1)은 제6회 대회에서 소설 '불

연속성의 도정'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정채봉(당시 국문2)는 제10회(1972년) 대회에서 소설 '바람부는 날의'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정리=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연속성의 도정'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정채봉(당시 국문2)는 제10회(1972년) 대회에서 소설 '바람부는 날의'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정리=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연속성의 도정'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정채봉(당시 국문2)는 제10회(1972년) 대회에서 소설 '바람부는 날의'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정리=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연속성의 도정'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정채봉(당시 국문2)는 제10회(1972년) 대회에서 소설 '바람부는 날의'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정리=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앗! 이런 광고가 동대신문에?

웃음이 나올정도로 '츄스러운' 광고들. 바로 70년대 동대신문에 실렸던 광고들이다. 당시 사회상을 말해주는 아레 광고들을 보며 '할수'의 세계 '아버지의 세계'에 빠져보자.

Advertisement for '조심해 화났다' (Be Careful, You'll Burn) featuring a man and a woman. Text includes '76年度美輪틀비아사 코미디·액션 특작' and '합체영화'.

Advertisement for '팬티스타킹' (Pantystocking) featuring a woman in stockings. Text includes '비비안' and 'NON-RUN STOCKINGS'.

Advertisement for '권총과 애인과 기타' (Gun, Girlfriend, and Guitar) featuring a woman with a guitar. Text includes '시내백화점 1층 악기부'.

Advertisement for '오라오라' (Ora Ora) featuring a woman. Text includes '젊음과 환희의 전당!' and 'GoGo Night'.

Advertisement for '키즈들 21시' (Kids 21) featuring a woman. Text includes '19년작' and 'ROCK AROUND THE CLOCK'.

Advertisement for '비비안' (Bibian) featuring a woman. Text includes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더욱 다양해진 비비안 팬티스타킹'.

Advertisement for '소장수' (Soyangsoo) featuring a man. Text includes '이름을 빼앗아 간다면 이 책이 나았다!'.

Advertisement for '해태창립 30주년 기념' (Haetae 30th Anniversary) featuring a man. Text includes '특별상: 삼호 아파트먼트' and '3000만원'.

동대신문 창간 49주년 기념 좌담회 - '동대 동대생 동대신문'

역동하는 대학, 건전한 지향점을 찾자

무한 경쟁시대 대처할 다양한 여론수렴 바탕위에

좌담자

일시 : 1999년 4월 7일 오후 4시
 장소 : 본사 회의실
 참석자 : 정남기 (연합뉴스 민족뉴스 취재본부장·경제64, 67년도 취재부장)
 신관호 (보교 100주년사업본부 발전협력팀장·경제69, 71년도 편집장)
 박원배 (경향신문 편집부 차장·국문78, 80년도 편집장)
 유권준 (불교TV PD·지교88, 90년도 사회부장)
 김미경 (문창전공97·현 편집장)
 황성규 (국제관계전공97·현 경주캠 편집부장)
 사회 : 이황우 (보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경평63, 65년도 편집장)

대학이 변하고 있다. 그 변화의 한 가운데에서 동대신문 학생기자로 활동했던 동인들이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현시기 대학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보았다. 대학안에서, 대학밖에서 보고 느낀 동국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 속에서 동대신문이 나아가야 할 길을 조명하였다. 더 이상 빛바랜 우리의 자화상에 안주하기보다는 변화하지 않고서는 발전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사회 : 동대신문 창간 49주년을 맞이하여 60년대부터 시작하여 90년대에 이르기까지 각 연대를 대표하는 동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통해 '동대, 동대생, 동대신문'이라는 주제로 동대신문과 동국대의 발전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질 것 기대해 봅니다. 먼저 동대신문사 학생기자로써 재직할 당시의 상황을 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기 본부장 : 제가 학생기자로 활동했던 60년대는 암울한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학내 분위기는 한일회담 반대를 위시한 학생운동이 활발했고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동국대는 당시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축을 이루었죠.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



몇 년 동안 주간으로 계셨던 송혁 교수님이 열심히 편집에 참여하시면서 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 신문사 조직을 단합시켰기에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후배들이 원고창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들으니 우리 재임 시절 원고작가를 안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당시에는 총학을 비롯해서 각 서클에 이르기까지 시국선언문이 많이 들어와서 어느 때는 한면이 전부 시국선언문으로 채워진 적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때문에 당시 정보원들의 신문편집에 대한 간섭은 잊지 못할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황성규 편집부장 : 90년대는 '우리'라는 개념보다 개인의 개성과 자유가 존중되는 분위기가 대학가를 풍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자들로 투지를 불살랐던 70-80년대와는 달리 현재의 학생운동은 일반 학생들의 외면 속에서 대중적인 활로를 모색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독재정권의 언론탄압 속에서 가장 진보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동대신문이었고 따라서 의식있는 사람들에게 가치있게 읽혔던 대학신문의 역할 또한 이제는 재정립해야 할 실정입니다.

나 살펴보면 우선 세 학교 모두 신방과가 있어서 학교 홍보가 일사불란하게 이뤄졌죠.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전경터에서 '사령관'도 없고 '아전병'도 없이 흐지부지 지내다 보니 역사와 전통, 그리고 불교라는 학교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는데 이것이 잘 이뤄지지 않았습니니다.

신관호 팀장 : PR이라는 것이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동국대의 경우는 피할 것은 일간 언론에 의해 얻어맞고 알려야 할 것은 감춰져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에서 동대신문다운 새로운 패턴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하죠.

정남기 본부장 : 대학신문은 객관타당성과 중립성을 견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대신문은 교내에 있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동문과 타대학 사회관계에 배포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필진에 대한 고민도 이뤄져야 합니다. 학내에 있는 교수나 동문들을 필자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준 PD : 제가 학교에 다녔던 80년대 후반부터 대학신문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에 들어 대자보라는 매체가 등장하면서 학내에서 대학신문의 독점적인 지위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 또 한번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다음 어떤

정남기 본부장 : 신문을 제작하고 보는 것 자체가 사회인으로서 커가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대학신문도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발전이나 대학 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학신문이 앞장서야지 너무 바깥사회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대학신문으로서의 특성이 사라질 수 밖에 없겠지요.

박원배 차장 : 옳은 지적입니다. 이번 동대신문 편집체제 전환작업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았지만 안정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踏实합니다. 편집상의 안정화 뿐만 아니라 기획면에서의 발전을 생각해 보자면 일간지도 그렇고 이제는 독자들에 의견을 수렴하는 여론면이 신문의 전반부 쪽으로 나와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유권준 PD

“시대의 변화와 함께 대학신문이 차지하는 매체의 독점적 지위도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통신이나 전자신문을 통한 신속한 정보제공에도 앞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있습니다. 즉, 이제는 독자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얼굴 사진과 이름을 많이 써서 독자들에게 신문기사가 내 이야기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모니터링이 달라야겠지요. 학술적인 기사와 행사를 탐으로 올리는 것은 식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고 쟁점화 할 수 있는 내용을 지면화시키려는 고민을 더 많이 해야합니다.

사회 : 각 연도별 시대상황에 비추어본 동대신문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또한 동대신문을 비롯한 대학신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고찰해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선배들의 고언에 대해 한 가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성규 편집부장 : '대학신문의 위기'라는 것은 오래전 선배님들때부터 고민이 이루어져왔는데 지금은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보다 읽히기 위한 신문으로 살아남기 위해 전기자가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50년, 51년 계속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 편집장 : 대학신문이 전적으로 학교 홍보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동대신문이 이에 선두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선배님들의 다양한 말씀을 들으니 수긍이 가는 점이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동대신문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회 : 긴 시간동안 함께 자리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여기서 논의한 내용들이 동국대와 동대신문의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남겨지기를 기원합니다.

정리=이미숙기자 ionia@cakra.dongguk.ac.kr



이황우 교수

“학내 이슈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학내구성원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은 향학열에 불타오르기보다는 민족이 처한 현실에 분노하면서 투쟁에 열중했습니다. 당시 신문사에 입사하기만 3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는 기자의 위치가 개인뿐만 아니라 학내외적으로 중요했던 시대상황을 반영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신관호 팀장 : 60년대 시대상황의 연장선에서 70년대는 학원안정화정책이나 10월 유신 등으로 학내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학생운동의 메카로서 동대생들은 부의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정보물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이러한 의식있는 학생들이 시사적인 학문을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바로 대학신문이었음을 감안한다면 타 대학에 비해 역사와 전통이 길었던 동대신문은 대학신문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배 차장 : 말을 덧붙인다면 동대신문이 경향신문사에서 주최한 전국대학신문 편집콘테스트에서 고대신문에 이어 2위를 차지했었습니다. 편집면에서나 기사의 방향에서 동대신문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지금은 고민이 되신 분인데,

유권준 PD : 60-70년대의 선배님들에 비해 80년대는 그간 억압되었던 자유에 대한 욕구가 분출했던 이데올로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위한 자유를 외쳤으니까 비교적 행복한 세대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88년도와 89년도에는 북한 바로알기운동을 전개했었고, 문익환 목사와 입수경의 방북이 이어졌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남기 취재본부장

“학내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동문들에게 답답함으로 다가오죠. 무한경쟁시대에 걸맞는 일사불란한 대학 홍보전략 수립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학생기자들은 북한에 대한 것은 직접 북한에 가서 취재해 보겠다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88년도에는 동대신문이 지령 100호를 맞이하였는데 긴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었기에 기념호 제작에 참여하면서 내내 가슴이 뚫렸습니니다.

김미경 편집장 :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문사 입사 경쟁률이 30대 1이 넘었다는 선배님 말씀과는 상반되게 요즘 학생들은 신문사 생활을 '3D업종'으로 인식하고 이에 선택 도전하지 않아 신문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시기 동대신문은 여러가지 면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외형뿐만 아니라 신문편집 전반에 걸쳐 내실있는 발전을 거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 각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신문사도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대 안팎에서 보는 현재의 동대와 동대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정남기 본부장 : 교수나 법인이 동전의 앞면을 보지 못해서 생겨난 갈등이 학교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출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꼭 일시적인 모순을 보여주었을 때 진정한 동대의 발전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학 홍보 전략이 없었다는 것이 학교가 정체하는 주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희대나 성균관대나 중앙대의 경우는 어쩌



신관호 발전협력팀장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을 조화시켜 대학신문다운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학생기자는 사회를 냉철하게 직시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게 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 : 학내 이슈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대학신문을 건전하게 여론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대신문을 포함한 대학신문이 해야 할 일과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논의해 봅시다.

신관호 팀장 : 신문이라는 것은 저널리즘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옳겠지만 대학신문이라는 점을 유념해 보면 아카데미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는가가 관건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변동에 따라서 대학신문도 이에 따라 굴곡이 많은 시대를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자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비롯해 사회를 냉철하게 직시할 수 있는 안목 또한 키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탕위



박원배 편집차장

“독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 없이 고민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신문을 읽으면서 내 이야기라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다가와야죠.”

인터넷이나 통신에 의한 대학신문의 독점적 위치의 변화입니다. 그렇지만 언론은 공신력을 갖출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여기서 동대신문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만큼 학내의 각 계층들간에 쌓여있는 벽을 허물어내고 가까이 만들 수 있는 매체가 바로 신문이기 때문입니다. 독자가 변화하는 신문이 변화에 대처하지 않고선 어떠한 실득력도 지닐 수 없는 것입니다.

본사에서는 창간 49주년을 맞아 본교 재학생들의 대중매체 선호도를 파악하고, 동대신문에 대한 만족도, 기사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고자, 본교 대학원 사회학과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편집자

정보화시대, “인터넷 동대신문 활성화 바람직”

학내보도 · 문화면 ... ‘호감’, 정치 · 사회면... ‘불만’

TV ... 손쉬운 이용과 재미, 신문 · 통신 ... 다양한 정보 추구

조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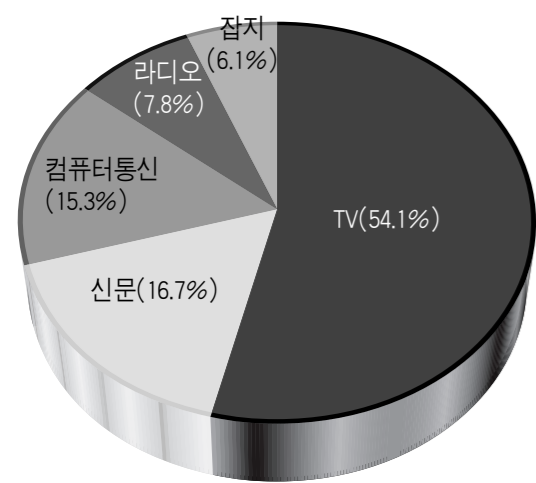
이번 설문조사에서 표본의 크기는 1998년 1학기 기준으로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에 등록된 학생 (1만1천9백3명), (8천4백66명) 중 조사비용 및 대표성을 감안하여 각각 198명, 97명으로 정했다. 표본 추출방법은 모집단을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층화하여 추출하는 층화표집법과 각 층에 할당된 표본수가 채워질 때까지 추출하는 할당 표집법을 병행하였다.

실제 조사는 1999년 4월 2일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에서 각각 실시되었으며, 조사원들로 하여금 응답자를 찾아가 응답자들에게 설문지를 주고, 그 자리에서 응답자들이 직접 질문에 대한 설문지를 회수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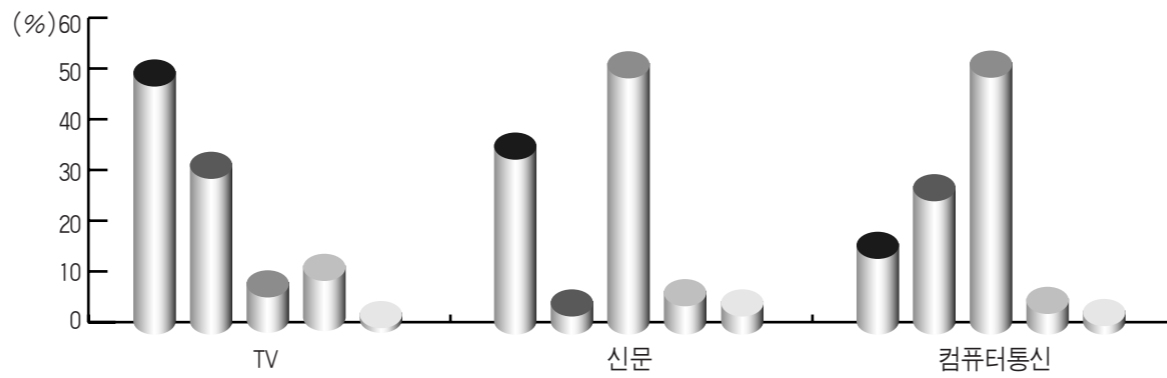
응답자의 캠퍼스 · 성 · 학년 분포

캠퍼스	%(명)	성	%(명)	학년	%(명)
서울캠퍼스	67.1(198)	남자	55.6(164)	1학년	29.5 (87)
		여자	44.4(131)	2학년	24.4 (72)
				3학년	24.7 (73)
경주캠퍼스	32.9 (97)	남자	44.4(131)	4학년	21.4 (63)
		여자	44.4(131)	계	100.0(295)
계	100.0(295)	계	100.0(295)	계	100.0(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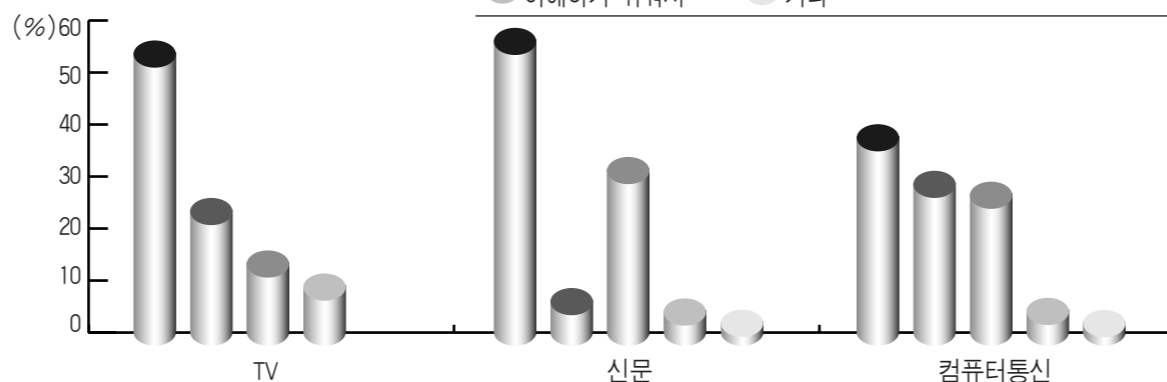
가장 선호하는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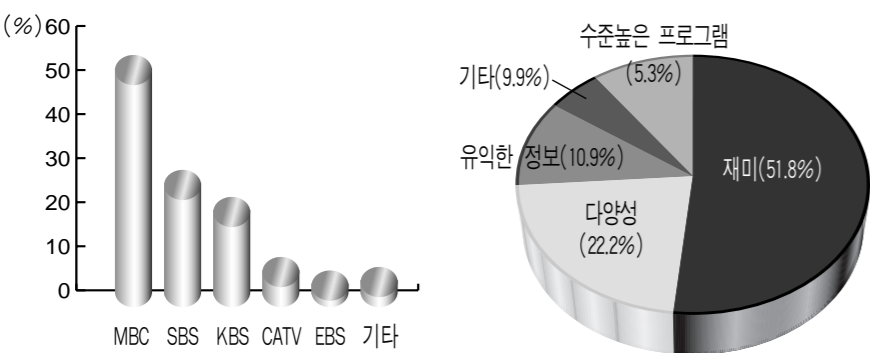
매체를 선호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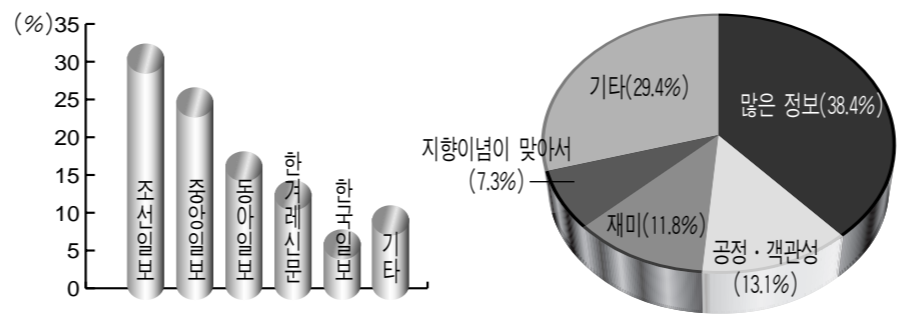
매체를 이용하는 이유



방송사별 선호도와 좋아하는 이유



신문사별 선호도와 그 이유



대중매체 선호도

이용의 수월성에 따라 선호도 달라 오락 · 드라마 즐겨본다

본교 재학생들의 대중매체 선호도와 이용정도는 ‘얼마나 손쉽게 이용 가능한가’의 여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일 본교 재학생 2백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좋아하는 매체로는 54.1%로 TV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신문(16.7%), 컴퓨터 통신(15.3%)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좋아하는 이유로는 41.2%가 손쉽게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이 재미있어서(26.5%), 이용할 정보가 많아서(23.0%)이라고 답했다.

매체별로 좋아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TV의 경우 손쉽게 이용 가능해서가 53.3%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재미있어서가 31.2%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신문과 컴퓨터 통신의 경우에는 이용할 정보가 많아서가 각각 51.0%, 51.1%로 높은 수치를 보여, 매체에 따라 선호하는 이유가 다를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매체들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로는 TV의 경우 여전히 쉽게 이용가능해서가 53.8%로 높게 나타났으며, 신문과 컴퓨터 통신의 경우도 실제 이용에 있어서는 쉽게 이용 가능해서가 각각 56.3%와 37.8%의 수치를 보여 이용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이용할 정보가 많아서라는 이유도 31.3%와 26.7%의 적지 않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에 주목해볼만하다.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의 방송사를 묻는 질문에는 MBC(50.3%), SBS(24.1%), KBS(17.6%)라고 답했으며, 좋아하는 이유를 보면 재미있어서가 51.8%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유익한 정보가 많아서 등의 이유가 있었다.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을 보면 순종산부인과 보고 또 보고 등 오락 · 드라마의 경우가 50.9%로 단연 높았고 뉴스(20.3%), 다큐멘터리(12.1%), 스포츠(7.1%), 사회비판물(5.3%) 순이다. 한편, 신문의 경우에는 조선일보를 많이 읽는다는 응답이 3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앙일보(24.9%), 동아일보(16.4%), 한겨레 신문(12.6%) 순이며, 기타의 응답으로 경향신문, 스포츠신문, 매일경제신문 등이 나왔다. 많이 읽는 이유로는 38.4%가 이용할 정보가 많아서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공정·객관적이어서, 재미있어서라고 답했다.

동대신문 관심도

다양하지 못한 내용에 만족도 저조

“소설연재 했으면” ... 긍정적 반응보여

동대신문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년전이나 타대학교의 비교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으나, 동대신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속성, 정확성, 공정성, 다양성, 편집구성의 5가지 항목을 통해 평가한 만족도(9점 척도)에 대한 조사결과 편집구성(5.07)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중간인 5점에도 미치지 않는 점수를 얻어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동대신문에 대해 만족하지 않음을 나타냈다. 특히 내용의 다양성의 경우에는 4.24로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캠퍼스별 만족도를 비교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경주캠퍼스 학생들의 만족도가 서울캠퍼스 학생들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중에서도 신속성(서울 5.03, 경주 4.07)과 정확성(서울 5.10, 경주 4.75)영역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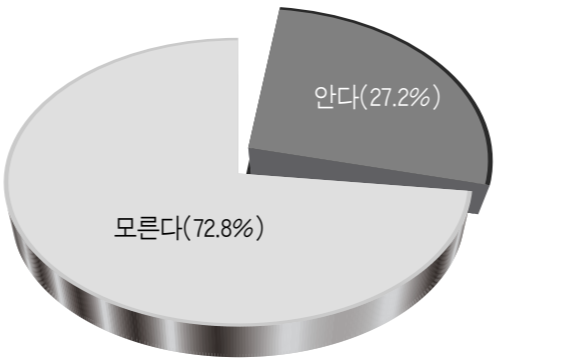
또 학생들이 주로 읽는 기사는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학내보도가 5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20.0%), 독자참여(11.6%)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좋게 생각하는 기사 또한 수치는 다르지만, 학내보도(37.3%), 문화(19.0%), 독자참여(17.5%) 순으로 주로 읽는 기사와 같은 순서를 보였다. 특이할 점은 학술 기획의 경우 3.6%만이 주로 읽는다고 응답하였으나, 14.2%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가장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사, 불필요하게 지면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사로는 정치사회면이 41.6%,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치사회면의 내용이 학생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앞에서 지적했듯이 내용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99년도 1학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한 기사서비스를 알고 있는지는 물음에는 72.8%의 학생이 모르고 있으며, 실제 이용한 학생 또한 41.0%에 불과해 이에 대한 홍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이 점은 홈페이지 개설이후 점차 이용 학생이 늘고있는 추세에 있어 동대신문이 지향해야 할 과제로 남을 것 같다. 한편, 동대신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동대생이 쓴 소설을 연재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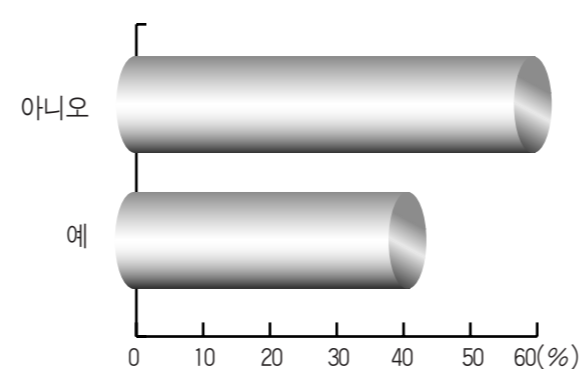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반영에 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가 53.0%,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28.6%로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마지막으로 동대신문을 읽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46.7%의 학생이 학내소식이 궁금해서라고 답했으나, 학내에 배포되므로 동대신문을 읽는다는 응답도 33.3%나 되었다. 또한 읽을거리가 다양해서 읽는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해 많은 학생들이 동대신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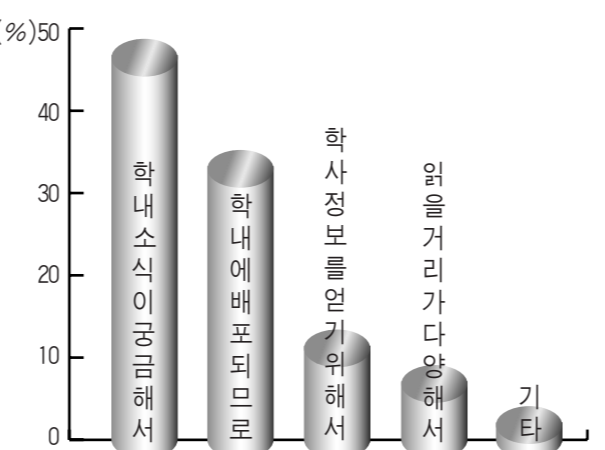
동대신문 홈페이지 인지도



동대신문 홈페이지 접속 여부



동대신문을 읽는 이유



전체 · 캠퍼스별 · 성별 · 학년별 동대신문 만족도 (1점(불만이다)-9점(만족이다))

	신속성	정확성	공정성	다양성	편집구성	동대신문 만족도	
전체	4.88	4.99	4.95	4.24	5.07	24.24	
캠퍼스별	서울	5.03	5.10	5.01	4.22	5.02	24.59
	경주	4.57	4.75	4.82	4.30	4.80	23.52
성별	남자	4.92	5.03	5.00	4.28	5.09	24.16
	여자	4.82	4.92	4.88	4.20	5.05	24.33
학년별	1학년	4.92	5.20	5.13	4.35	5.19	24.72
	2학년	5.23	4.96	4.71	4.22	5.00	24.35
	3학년	4.47	4.79	4.97	4.36	5.04	23.70
	4학년	4.89	4.98	4.92	3.98	5.02	24.10

동대신문의 기사에 대한 평가

	학내 보도	문화	독자 참여	정치 사회	학술 기획	사설 칼럼	계
주로 읽는 기사	56.0	20.0	11.6	5.1	3.6	3.6	100.0(275)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기사	37.3	19.0	17.5	3.7	14.2	6.7	100.0(268)
가장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사	7.6	9.2	9.2	41.6	15.2	17.2	100.0(250)
비중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	30.1	23.7	12.8	12.4	12.8	8.3	100.0(266)
불필요하게 지면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사	5.7	12.4	8.1	35.9	14.2	17.7	100.0(209)

경주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대정원~계림 ... 시민들 적극적 참여 아쉬워

토요일 오후 3시 대정원 앞을 시작으로 침성대, 계림까지 이어지는 '문화예술의 거리'는 관광객들과 시민들로 가득하다.

경주시 '문화예술의 육성'이라는 취지에서 지난 3일부터 9백여미터의 거리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 각종 문화행사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댄스 페스티벌, 사물놀이, 패션쇼, 레크레이션 등의 행사 및 조각, 사진전시회 등이 거리의 활력을 북돋우며, 곳곳에서 초상화를 그려주는 화가들 덕분에 몽마르뜨 언덕이 연상되기도한다.

문화예술의 거리와 관련해 시청문화과 김대호씨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

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더 나은 관광 명소로 발전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고 행사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평일에는 문화의 거리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시민들의 참여는 저조하고 시청 역시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명목아래 시설물을 제대로 들여놓을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아무췌록 열려있는 공간이자 참여의 공간이기에 '문화예술의 거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확보 될 때 만이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황성규 기자
19711439@mail.dongguk.ac.kr

세도(勢道)정치와 패거리 정치

조선 후기 정치권력의 형태와 습성을 나타내는 말 중에 '세도정치' 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유명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유래와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는 형편이었다.

옛 성인군주의 이상적인 덕치를 왕도(王道) 정치라 하며, 그에 비해서 힘과 술수, 법률에 의지하여 효용과 실리만을 쫓는 정치를 패도(霸道) 정치라 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 세도의 의미를 짐작할 뿐이었다. 왕도-덕치, 패도-법치라면 세도는 '세력'의 정치를 의미할 것이다. 세력의 정치는 또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학생 때 이래 줄곧 뇌리의 한 구석에 있었지만 더 이상 심각하게 그 의미를 추구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요즘은 문득 세도정치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생각났다. '패거리 정치' 가 그것이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정치판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 말은 이상·이념·정감도 없이 오직 소속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패거리를 이루어 횡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위장하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패거리 정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정당과 정치인들. 국세를 절취한 중죄인인 서상목씨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의원들의 자기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패거리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을 여실히 본다.

우리 역사상 패거리 정치를 형성케하는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조선후기에는 안동 김씨 등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단결이었으며, 최

근에는 지역감정-지역'의식' 수준도 못되는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때 '대도무문'(大道無門)이라는 휘호를 즐겨 썼던 김전대통령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와는 정반대의 패거리 정치를 꾀던 것으로 유명한데, 그가 또다시 해괴한 언동으로 세인의 주목을 끌고 있다. 환란을 초래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절감하기는커녕 또다시 현실정치에 참견하고 나서는 것을 보면 과연 이 나라의 패거리 정치의 뿌리깊음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감히 자신의 죄를 돌보지 않고 정치행동을 재개한 데에는, 지역감정을 자극하기만 하면 백목적으로 지지해 줄 세력이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지역감정과 패거리 의식이 극도에 달하고 있는 느낌이다.



정대섭
사범대
역사교육과 교수

제2회 서울 여성영화제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

오는 16일부터 동숭아트센터에서 ... 영화밖 연대구성 모색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영화제!” 제2회 서울여성영화제가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 라는 기치를 내걸고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동숭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지난 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에는 극영화, 다큐멘터리, 한국영화, 멜로드라마 회고전 등 다양한 장르로 52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지난 1회 영화제가 '미망인(감독=박남옥)'이라는 한국 최초의 여성영화를 발굴했던 것과 같은 성과는 없었지만 '단발머리(감독=김수동, 출연=남영임, 이순재)', '자유부인(감독=한형모, 출연=김정림, 박암)' 등을 비롯한 한국영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비중있는 작품이 상영된다. 2회에 접어들면서 단편영화, 비디오작품의 양과 질이 모두 개선된 것은 이 영화제가 여성영화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여러가지 색다른 주제로 나누어 영화를 소개한다는 점인데 이는 단순한 일반적인 페미니즘 영화 상영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여성연대를 구축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앞서서 보기'의 경우 90년대 이후 여성 감독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국내에 미공개된 우수작들을 선보이는데 대중작품 속에 녹아있는 페미니즘을 표현한다.

'뒤집어보기'는 남성중심의 사고관 자체를 여성 중심으로 바꾸어 보는 시도로 남성에게 가려져왔던 여성들의 욕망을 터뜨린다. 여성의 모든 부분을 남성의 잣대로 평가하고 그들의 시선에 묶여 놓았던 것을 '환상, 여성의 욕망과 쾌락의 새로운 정치학'이란 포럼을 통해서 영화 바깥에서의 연대 구성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여성영화제보다 가장 큰 규모의 변화를 보인 것은 단편영화 및 비디오부문으로 '견주어보기'인데 이는 이번 행사에서 유일한 경쟁부문이다. 지난 행사의 두배에 달하는 68편의 응모작 중 심사를 통해 20편이 상영되고 관객의 평가를 통해 시상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비록 국가의 지원이 있긴 하지만 역

시 턱없이 부족한 재정으로 꾸려졌는데 '견주어보기' 부문의 수상금은 본교 유지나 교수(연극영상학부)를 비롯한 서울여성영화제 추진 위원들로 구성된 선배 영화인들이 모금을 해서 마련했다.

그들은 이번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감동을 주는 영화의 상영이 목적이 아니다.

미치지 않으면 살아갈 힘이 세상, 여자들이기 때문에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세력으로 치부되고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현실, 그 현실 앞에서 작지만 매운 일격을 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성에 대한 의식은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급진되었지만 사회통념 속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의식과 현실의 괴리가 계속되어왔다.

이제 여성들은 남성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세상속에 원없이 쏟아내려 한다.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여성영화제를 이끈 극단 '미녀'의 구성원들.



인육을 먹는다고 논란이 일어난 '301·302'.



동성애를 다룬 영화 'fire'.

홍기삼 교수가 권하는 책



조선 불교 유신론



1919년 3·1운동때 33인 중의 한 사람이며 본교 출신인 만해 한용운의 저서.

조선시대 말, 불교를 개혁하고 자주화하려는 인식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펴낸 책이다.

그는 불교의 현실참여를 주장하며, 불교를 통한 청년운동을 강화하고 독립사상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김유정 전집



'노다지'가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1935년 문단에 데뷔.

2년동안 작가 생활을 통해 30여편의 작품을 남겼는데 대부분 농촌을 배경으로 담고 있다.

어리석은 인간의 욕망을 담은 '금파는 콩밭'과 인간의 희극적인 감정을 유머러스하게 그린 '불뼉'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16일(금)	17일(토)	18일(일)	19일(월)	20일(화)	21(수)	22일(목)	23일(금)
1회 11:30	〈내버려둬〉	〈셀리아〉	〈김약국집 딸들〉	〈프리 율란도〉	〈행복의 거리〉	여성영상공동체 〈감독과의 대화〉	단편경선2, 4	〈조디포스터 이야기〉 〈아름다운 육체〉 〈후미꼬를 찾아서〉
2회 1:30	〈단팻, 쓴맛〉 〈보름달〉	단편경선1 〈감독과의 대화〉	단편경선3	〈아이리스의 갈망〉	〈미워도 다시 한번〉	〈내버려 둬!〉	단편경선 1, 4	〈남편〉
3회 4:00		〈행복의 거리〉	〈밤이 기울면〉	여성영상공동체	〈슈가 타운〉	〈학사기생〉	단편경선 3, 4	〈하이 아트〉
4회 6:30	개막식(6시)	단편경선2 〈감독과의 대화〉	단편경선4 〈감독과의 대화〉	〈자유부인〉	〈후미꼬를 찾아서〉	〈밤이 기울면〉	〈비비인형의 제국〉	폐막식(7시)
5회 9:00		〈팝의 여전사들〉	〈조디포스터 이야기〉	〈나의 페미니즘〉	〈단팻, 쓴맛〉	〈작은 보석들〉	〈팝의 여전사들〉	
		〈나의 페미니즘〉	〈아름다운 육체〉	〈비비인형의 제국〉	〈작은 보석들〉		〈슈가 타운〉	
			〈드림 걸즈〉					
12:00~6:00	〈심야상영〉	〈밤이 기울면〉	〈슈가 타운〉	〈아이리스의 갈망〉 (토, 일)				

매체비평

- 광고편
비교광고

“비교광고는 일반광고보다 쉽게 눈에 들어오고, 신상품이 기존 상품에 맞서 곧바로 시장에 뛰어 들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상호비방으로 이어진 비교광고는 공멸의 길일 수밖에 없다.

“누비라로 힘차게 왕복할 것인가/ 아, 반대로 힘없이 왕복할 것인가” 절대 이를 갖고 ‘잔란’ 칠 수 없을 줄 알았던 현대자

동차의 ‘아반떼’. 경쟁사 대우자동차의 허를 찌르는 이 카피때문에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할말을 잃었다는 후문이다. 진로소주와 그린소주의 순가락이 꽃이 있는 소주병과 함께 ‘홀리칸 노래’라는 문구 vs. ‘왜 그린 소주를 마셨는지 모르겠다’라는 문구로 각각 상대방을 겨냥했다. 고려화축은 바닥재 우드피아 광고에서 절대 거짓말을 못할 것 같은 어린아이를 등장시켜 “우리집은 하나네보다 예쁘네보다 좋아요”라는 카피를 사용했다. 경쟁사인 한화와 LG보다 자사 제품이 좋다는 내용이다. 미스터피자는 ‘피자, 핫 드렸습니다’로 피자맛을 자극했고, 지난해에도 비교광고가 쏟아졌다. 철성사이더의 콜라 비교광고와 이에 앞서 에스케이텔레콤은

이의점을 내세워, “기적국이 몇 개예요”라고 도발적으로 캐물었다. 이의점의 질문에 말문이 막힌 남자모델의 수는 3명. PC S 3사와 똑같다. 최근 들어 비교광고가 부쩍 늘었다. 과점 상품시장이 완전경쟁 체제로 바뀌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광고제작자들이 비교광고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일반광고보다 쉽게 눈에 들어오고, 신상품이 기존 상품에 맞서 곧바로 시장에 뛰어 들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비교광고가 제한돼 있다. 상대방을 비방하면 안되고 제품을 명시해도 안된다. 하지만 7월부터는 비교대상과 기준을 명기할 경우 유리한 항목만 광고하는 것이 허용돼, 비교 광고의

열기는 한층 더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72년부터 경쟁사의 실명을 등장시키는 비교광고를 합법화했다. 소비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상품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우리나라에서 비교 광고를 허용하는 이유 또한 이와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이제껏 우리의 비교광고는 대체로 객관적 기준과 자료를 갖지 못하고, 단순히 경쟁사를 깎아내리는데 급급했다. 즉, 소비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지 못하고 단순히, 과열경쟁만을 해왔던 셈이다. 그래서 광고를 한 회사에서는 광고로 인한 효과를 보았다기보다는 여론의 따가운 화살을 감수해야만 했다. 요즘 누비라와 아반떼로 감정이 상해있는 현대와 대우자동차는 작년 8월에는 아

토스와 마티즈의 비교 광고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것은 약과이다. 몇년 전 불을 일으킨 녹취기 회사간의 과열광고가 상호비방으로 이어지고, 쇠가루 논쟁으로 퍼져 모든 회사의 녹취기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말았다. 또한 우유회사간에 고름우유 비방광고가 끝난 뒤, 파스퇴르 우유는 부도에 처하기도 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비교광고는 공멸의 지름길일 수 밖에 없다. 서로 “너 나빠”, “너 나빠” 하다보면 결국 둘 다 나쁜 것이 되는 것은 동화에도 나오는 진리이다. 비교광고는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져야 한다. ‘광고전쟁’은 신사적이어야 한다. 서로에 대한 비난은 “이제 그만~” 문화부

점음이 밤을 수 놓는다



다 이상 ‘밤’은 잠자는 시간이 아니다. 전과는 다르게 훨씬 다양하고 이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다. 아직도 ‘통금시간 11시’ ‘취침시간 12시’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 관련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심야문화의 갖가지 종류와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다 이상 ‘밤’은 잠자는 시간이 아니다. 전과는 다르게 훨씬 다양하고 이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다. 아직도 ‘통금시간 11시’ ‘취침시간 12시’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 관련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심야문화의 갖가지 종류와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심야 영화로 시작 ... 쇼핑 · 게임 등 점차 활성화

심야문화의 견인차는 뭐니뭐니해도 심야영화. 97년 야간 상영을 시도한 뉴남대문 극장의 ‘에로틱영화 축제’와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가 관객들의 호응을 얻어 심야영화 상영의 성공가능성을 예측하게 하더니, 급기야 97년 12월 개봉한 4시간 40분짜리 덴마크 영화 ‘킹덤’은 야간상영 전회 매진의 놀라운 흥행 성적을 기록, 심야영화 ‘붐’의 효시를 이루었다. 80년대 초반에도 심야영화 상영이 ‘반짝’ 한 바 있다. 당시 통령금지 해제와 함께 ‘반짝’한 심야영화상영의 주메뉴는 에로영화. 이에 반해 지난해 열풍을 일으킨 심야영화상영은 주로 컬트성격의 공포영화였다. ‘록키호러 픽처쇼’ ‘어글리’ 등이 그것이다. 또한 제3세계 영화시사회나 흥행에 성공 못한 예술영화의 재기 기회가 되기도 했는데 이는 영화 마니아들의 구미와 맞아 떨어진 것이었다. 최근들어 심야영화상영은 비단 컬트영화나 예술영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할리웃의 오락물이나 한국영화도 상영되고 있어 굳이 마니아가 아니더라도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또한 3백석 이상의 영화관이 관할구청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던 규제가 풀

려 많은 영화관이 ‘잡자던’ 영화관을 부지런히 ‘놀리는’ 것도 사람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게 해주고 있다. IMF도 심야영화 ‘붐’ 조성에 한몫 단단히 한다. 3편 동시상영하는 심야영화가 주간 상영영화 2편의 값이기 때문이다. 다음 동대문으로 눈을 돌려보자. 번쩍번쩍, 북적북적... 낮보다 상황을 이루고 있다. 주로 지방 도매상들이 찾던 동대문시장, 이제는 젊은이들로 붐비고 있는 것이다. 낮시간대보다 물건값이 저렴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프레아타운, 밀리오레, 두산타워, 평화시장 등 치열한 상권경쟁으로 경쟁행사 및 부대행사를 동원하면서 밤시간까지 함께하고 싶은 연인들의 데이트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언더 락밴드 공연, 케이블 TV 공개방송 등을 개최해 손님들의 발길을 붙잡고, 각종 카드발급으로 손님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이다. 부쩍 늘어난 게임방이나 기존에 존재하던 만화방, 비디오감상실도 심야영업으로 짝퉁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게임방이 처음 등장한 것은 97년 말. 대학가를 중심으로 퍼지던 것이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에까지 ‘침투’해 지금은 전국에 2천5백여개가 영업 중이다. 본고 서울캠 주변만 해도 지난 몇달

사이 수십군데가 늘어난 게임방의 경우 ‘스타크래프트’가 대학생들의 밤을 공략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0일부터 심야영역이 허용된 비디오감상실은 낮시간대보다 파격적인 가격으로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다. 5천원 안팎이면 친구와 함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비디오감상실, 극장과 달리 옛날 영화도 볼 수 있어 더욱 좋다. PC통신, 케이블TV, 편의점 등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같은 심야문화 열풍을 즐기는 사람들은 주로 우리 대학생들이다. 라이프 싸이클이 비교적 자유로운 학생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할 것이나 밤늦게 집에 들어갈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밤에 좀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거예요” 라는 한 학생의 말은 “술이나 마시며 몸 상하는 것보다 좀더 자신의 구미에 맞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자”는 요즘 학생들의 경향을 잘 드러내준다. 젊은이들의 주 활동시간대가 낮에서 밤으로 바뀐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너무 설부른 것일까. 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심야 쇼핑 “시중 브랜드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 실속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나이트 쇼핑족! 올해 대학교 2학년인 이모양도 그중의 하나. 이모양이 자주 찾는 동대문에 있는 밀리오레는 대표적인 쇼핑족의 집결지이다. 야의 특설무대를 갖추고 매일밤 공연을 하는데 단순한 구경에 그치지 않는다. 일주일에만 한번씩 청중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끼를 발산 할 젊은이들의 발길을 모으는 것이다. 오늘도 저녁 7시 30분이 되자 야외무대에서는 토네이도, 레드핑거라고 불리는 댄스그룹의 힙합공연이 있었지만 이모양은 반응이 시큰둥하다. 잠시뒤 아름다운 밴드 라디안의 흥겨운 락공연이 있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공연장이 터질 듯한 환호를 지른다. 밤11시가 다 되어서야 야외 공연은 막을 내렸다. 공연이 막을 내리자 이모양은 괜히 배가 고파온다. 뭐니뭐니해도 먹거리가 있어야 쇼핑할 맘이 난다며 근처 포장마차에 들러 군것질을 한다. “아줌마, 떡볶기1인분, 오렌 1인분, 튀김1인분...” 풀티 산다고 다이아트하며 물어오던 이모양이 식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먹어치운 이모양. 슬슬 발길을 매장안으로 옮겨보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온통 또래의 10대, 20대들로 가득 붐빈다. 7천여개가 넘는 점포는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으로 유행에 민감한 젊은이들의 시선을 묶는다. 가격 또한 백화점이나 시중 브랜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 실속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새벽 5시가 다되어도 매장을 채운 사람들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 흥정을 하느라 바쁘다. 버스가 정면앞으로 한두대씩 지나가기 시작했고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진 이모양도 81번에 몸을 싣는다. 양경민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게임방 “‘한끼 어때?’ 자판을 두드리며 게임을 같이 즐길 상대를 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루일과를 정리하고 각자의 안식처에서 휴식을 취할 밤 12시경. 친구들과 거나하게 한잔한 동국이는 학교 앞 밤거리를 헤매며 앞으로의 일정을 생각한다. “오늘 새롭게 구상한 전략을 실천에 한번 도입해 볼까”라며 동국이가 발걸음을 옮긴 곳은 다름 아닌 인터넷 PC게임방. 일렬로 배열된 컴퓨터에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게임을 즐기고 있다. “아저씨 스타크래프트 브로드워 한 장이요” CD를 받아들고는 배틀넷에 접속, “스타크래프트” 세계의 문을 연다. “한끼 어때?”라고 자판을 두드리며 게임을 같이 즐길 상대를 구하고 수없이 많이 나열된 방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곳을 클릭한다. 접속한 곳에서는 이미 다른 게이머들이 먼저와 기 다리며 동국이를 반겨준다. “Hi dongguk, you gosu?” “No, I’m chobo” 몇 마디 대화로 서로 탐방전을 벌인 후 게임은 시작된다. 여러 종족중 ‘테란’을 선택한 동국이는 서로 동맹맺을 친구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어떻게 전략을 펼쳐나갈지 다시 한번 공리해본다. 하지만 이론과 실전은 다르며, 상대방의 실력도 만만치 않아 생각대로 게임은 진행되지 않고 동국의 패배로 게임은 끝난다.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낸 뒤 온몸의 피로를 느낀 동국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값을 지불하고 밖으로 나온다. 밝은 햇살이 그를 비추며 고등학생들이 등교하기 위해 바삐 발걸음을 옮긴다. “이런, 오늘도 밤 샘이군” 머리를 긁적이며 1교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동료는 동국이는 속으로 되뇌인다. “오늘은 결코 게임방에 오지 않겠다”고. 그러나 가슴속깊이 다짐하고 뒤돌아선 동국이의 마음을 의문한 듯 PC게임방의 간판은 아침햇살에도 불구하고 더욱 빛나는 듯 하다. 황성규 기자 dg19711439@mail.dongguk.ac.kr

자문소식

학교 밖에서

해가 지면 달이 뜨고



극단 신화가 만들어낸 서민극 시리즈 3탄. 뮤지컬, 코미디, 악극 등 ‘대중극’은 연극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정통 연극 지상주의자들에게 극단 신화가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섰다.

서울 망우동 달동네의 만두가게 주인과 생선가게 여주인, 좌판 상인들을 통해 신행민의 아픔과 서민들의 아픔을 그려내고 있다. 김태수 극본, 김영수 연출

오는 6월 6일까지. 동송동 인간 소극장 무대에서. 문의 923-2131

황진이



실존적 확신을 갖고 치열한 삶을 살았던 조선조 중종대의 자유인 황진이.

구상시인의 연극에서 영감을 얻어 대본 작업 2년, 음악 작곡 4년, 최종손질 2년을 더해 10년만에 무대에 오르는 작품이다. 시각디자이너 한정해가 황진이 캐릭터를 자칭해 도안을 맡고 영화 감독 이창호가 연출을 해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문의 587-1950

문성근 나와라



우디אל렌의 원작을 각색한 작품. 초라한 한 남자의 실연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주변 인물들과 남녀관계 그리고 내면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으로 현대인들이 겪고있는 소외감을 잘 나타내고 있다.

다음달 15일까지. 은행나무극장에서. 문의 3672-6051

메아리

유행어 제조기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신한국병’을 청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한 취임초기 ‘신경제’를 주창하며 자율과 창의를 내세운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보에 이은 기아의 부도사태는 지역감정, 관료조직의 병폐, 정치권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 등 ‘총체적 신한국병’ 그 자체였으며, 진로, 한라, 대농 등 재벌

들의 연쇄부도는 결국 우리나라에 ‘IMF- I’m F, I’m Fired, I’m Fine’ 등등’ 라는 쓸쓸한 유행어를 만들어 주었다. ▲김대중 현 대통령은 지난 8·15경축사에서 ‘제2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를 주창했다. 건국 50주년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도약시켜 국난을 극복하자는 취지였다. ‘제2건국’이라는 말은 물론 그 전의 상황이 안 좋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지난 2월 3일에 있었던 제2건국 위 결의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전업 주부, 농민, 노동자, 회사원 등 국민모두가 연구와 창조를 통해 자신의 일을 고부가 가치화, 고능률화하는 ‘신지식인’이 돼야 한다”고 하고, 이날 21세기형 한국인을 위한 의식개혁운동으로 ‘신지식인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그리고는 대중음악가 김수철씨, 우리에게

게는 코메디언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는 영화감독 심형래씨 등을 신지식인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말은 사외의 반영이다. ‘신한국병’, ‘신경제’, ‘제2건국’에서 또다시 만들어진 ‘신지식인’이라는 말... 물론 이러한 용어들이 한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고쳐보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지고, 지켜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이

것들은 비단 몇 년간의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무슨 경쟁이라도 하듯 책임지지도 못할 말들을 무수히 만들어 내고 있으니... 이러한 말들의 제조자들은 새롭게 생긴 용어를 우리 말 사전에 넣을 시간이나 공신력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일까? 박영실 기획부장 youngsp@cakra.dongguk.ac.kr